

2 0 1 0  
F A L L  
V o l . 2 4

세계 초우량 기업을	COVER STORY	06
향해 가는 원익	DREAM SECTION	17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CHALLENGE SECTION	29
	PASSION SECTION	37
	LIFE STORY	50

# 원익인



# 公正 + 透明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원익의 경영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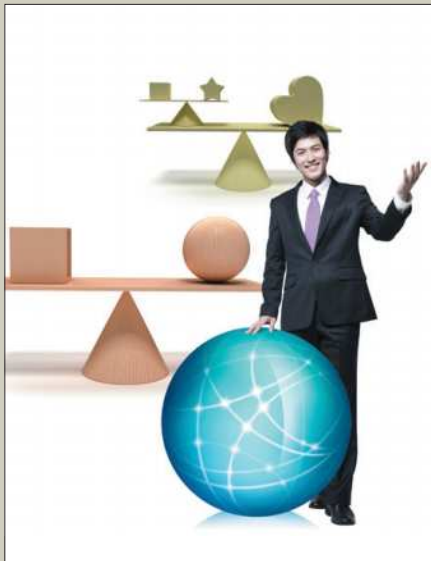


원익사보 2010년 가을호 원익사 통권 24호 발행인 임창빈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발행일 2010년 10월 발행처 원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사'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VER STORY

- 06 Cover story 공정과 투명
- 08 Wonik News 원익 계열사 소식
- 14 CEO Column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가 경쟁력입니다"
- 16 Discovery of Baduk 제 6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식

2010 FALL Vol. 24

# 원익

## CONTENTS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 COVER STORY

- 06 Cover Story 공정과 투명
- 08 Wonik News 원익 계열사 소식
- 14 CEO Column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가 경쟁력입니다"
- 16 Discovery of Baduk 제 6기 원익배 심단전 개막식

## D R E A M

- 18 Special Edition 국산제품 경쟁력 입증한 원익의 기술력 돋보였다
- 20 Wonik Training Program 2010년 하반기 리더십 교육 실시
- 22 Power of Wonik Technique (주)아토 PE-OVD 1000억 달성 기념
- 24 Wonik Dissertation 차세대 고효율 LED 및  
고출력 전기소자용 GaN 단결정 개발 동향

## C H A L L E N G E

- 30 Wonik's Dream Team "사람을 위한 더욱 편리한 기술을 만듭니다"
- 32 Never ending challenge 인재와 타이밍에 주력했던 정통CEO, 빌 게이츠
- 34 Self Innovation Note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

## P A S S I O N

- 38 Zoom in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희망의 <출인원>
- 40 Positive Energy 사진애 빠진 후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 42 Talk Box 달라지고 있는 회사 문화
- 48 Scene of Welfare Service 보이지 않는 손길로 따뜻한 마음 전해요

## L I F E S T O R Y

- 50 Economic Report 배추 값 파동 그리고 책임경영
- 52 Book 혼·창·통
- 53 Exhibition 플리처상 사진전
- 54 Health 피로가 풀리는 10분 스트레칭

14 CEO COLUMN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가  
경쟁력입니다



18

SPECIAL EDITION

2010 국제반도체대전(i-SEDEX)  
원익 4개사 참가



34

SELF  
INNOVATION NOTE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



38

ZOOM IN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희망의  
〈홀인원〉



53

EXHIBITION

폴리처상  
사진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이

빛난다



###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이다. 최근 기업윤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윤리경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긍정적인 행위는 곧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기업의 윤리적 행위는 곧 기업의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내외적 기업경영 환경도 이렇듯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경제기구에서 '국제간 거래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추진하는 이른바 '부패방지라운드'를 추진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자율 실천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필수적이라는 이유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가치경영 실천의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동·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리더십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업 문화창조를 위해 '3불(不) 3권(勸)운동'을 채택, 임금체불·인권침해·탈세오명을 벗어나고 인재채용·환경개선·혁신경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는 '가치경영 실천'으로 신뢰받는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고, 투명경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율 회계처리기준 제정할 방침이다.

## 기업의 공정성, 투명성이 기업가치 높인다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윤리경영은 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기업은 종업원, 고객, 지역 사회, 주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이것은 기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된다. 나아가 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초석이 된다. 기업윤리의 실천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3M, 존슨 앤 존슨, 록히드마틴 같은 기업들은 하나같이 윤리경영을 미래의 핵심 역량으로 삼아 성장해왔으며, 지금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공정성·투명성 실천으로 신뢰받는 기업, 원익

원익은 설립 초기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업문화 핵심가치로 정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용한 원익 회장은 "공정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 경영진, 협력업체, 소비자, 주주, 시민사회, 정부, 환경 등과의 관계에서 함께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원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원익은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창의성 존중, 도전정신 고취, 정보와 성과 공유, 업무수행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핵심가치를 소중히 지켜왔다.

올해 원익은 그 어느 때보다 윤리경영 실천에 분주하다.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그 비전에 공감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기업, 원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원익은 위임전결제도 보완, 의결기구 및 회의체 재정비 등 의사결정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회의제도 개선,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공정과 투명의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의 창의성 및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WONIK NEWS

## (주)원익



### 2010년 제 3차 All employee meeting 진행

(주)원익은 지난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강원도에 위치한 현대성우리조트와 숲속의아침에서 2010년 세 번째 All Employee Meeting을 진행하였다.

이번 미팅에서는 3사분기의 영업이익률 등 경영성

과를 리뷰하고 4사분기의 경영전략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15년, 10년, 5년)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All employee meeting은 임직원 모두가 참석하여 그 의미가 더 했으며, 참석자들은 Team 단위 활동들을 통하여 Team Work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유로운 토론문화의 효율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었다. 구자규 사장은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원익에 가족문화(Family Culture)를 도입 하여 한국 고유의 끈끈한 정과 구수한 장맛이 느껴지는 '가족 같은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쾌적한 환경과 창의적 사고 고취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

(주)원익은 지난 10월 초에 사무환경 개선을 실시하였다. 임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하여 실시 된 이번 사무환경 개선은 Brain storming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각종 회의, 휴식, 및 독서의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회의실의 경우 쾌적함 속에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도록 단장되었으며 각 회의실의 이름은 직원들의 창의성에 호소하여 공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주)원익의 구자규 사장은 이러한 사무환경 개선이 "사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대응하며, 기업 이미지 향상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원익쿼츠

### 세라믹 소재 업체 인수

(주)원익쿼츠는 10월 12일 산업용 세라믹 소재 전문 생산업체인 (주)세라코 지분 100%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강릉시 대전동 과학단지재 위치한 (주)세라코는 1997년 설립된 회사로서 종업원 11명으로 전년도 매출액 15억원, 2010년 상반기 12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익률 또한 높으며, 산화물계 및 비산화물계의 여러종류의 세라믹 소재에 대해 분발조성-공정기술-공정관리에 이르는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익쿼츠 반도체/LCD 분야의 영업력으로 사업역량을 넓히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

### QMS Rebuild 2차 Workshop 개최

(주)원익쿼츠는 2009년부터 의욕적으로 진행해 온 QMS 재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26~27일 1박 2일로 2차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고객 만족과 경영성고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계획된 전사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재해석하여 QMS(Quantum leap : 비약적 도약, Manageable process : 관리 가능한 프로세스, Systemic approach : 체계적인 전개) 라는 전략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며 한층 Upgrade 된 시스템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 사회 봉사단

#### 『 장애인 복지관 일일장터 후원, 행사 시행

(주)원익쿼츠 사회봉사단인 원익나눔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일 장터 『나눔과情이 있는 풍경, 함께하는 세상』에 참여, 바자물품 전



달 및 행사진행, 정리정돈 등 유관기간,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되어 뜻 깊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장애로 인해 사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10월 8일(금) 구미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진행, 지역 내 주민 약 1,0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운영되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개발과 각종 재활치료 운영을 위해 활용될 예정. 이날 행사에 참여한 원익 나눔회 회원들은 행사의 진행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폭 넓게 활동하여 일일 장터가 올바르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움직였으며 비가 오는 외중에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시민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았다. 처음으로 봉사단 활동에 참가한 신입회원은 이러한 자리가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으면서 앞으로 봉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 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원익 나눔회는 앞으로 사람의 김치 전달하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의 미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 사랑의 헌혈 릴레이 실시

(주)원익쿼츠 사회 봉사단인 “원익나눔회”에서는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과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80여명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동참한 가운데 지난 9월 16일 당사 사옥에서 직접 헌혈차가 방문하여 헌혈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행사는 매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최근 부족해지고 있는 혈액 공급을 돕고,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헌혈증을 기증 하였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전달되어 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년에도 50여명이 헌혈에 참가하는 등 앞으로도 매년 헌혈 및 이웃돕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신원종합개발(주)

### 김포양곡주공아파트 현장 준공



당사는 또 하나의 현장을 준공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10년 7월 4일 이광수소장을 비롯 현장직원들은 최고의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주공아파트인 만큼 참여하는 건설사별로 준공 일정이 다르지만, 당사는 5월 일부 준공을 무사히 통과하였고, 7월 최종 준공에 통과하였다.

### 청담제일시장 재건축사업 수주



7월 23일 공사계약을 체결 26일 청담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제일시장 재건축사업공사 수주 공사를 하였다. 계약금액은 197억55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주)아이피에스 (주)아토

### 이문용 대표이사 취임



2010년 10월 4일 이문용 대표이사 취임식을 (주)아이피에스 복지동 대강당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는 반도체/LCD/Solar장비에 이르기 까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극대화 및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전

략으로 장비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성과들이 고객 및 주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과 주주의 행복을 함께 실현하는 기업 (주)아이피에스 (주)아토로 경영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주)아이피에스

### 2010 세미콘 타이완 참가

(주)아이피에스는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만 Taipei 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23,450제곱미터의 전시면적에, 680여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21,000여명이 참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치제조, 장비제조, 물자제조, 소프트웨어 분야의 여러 업체가 참가하여 여러 장비를 선보였으며, (주)아이피에스는 반도체 장비와 SOLAR장비 부분의 주력 장비를 소개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를 비롯한 각국의 여러 업체들이 (주)아이피에스의 장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반도체 부분의 DB21에 큰 관심을 보여 GLOBAL IPS의 앞길에 청신호를 밝혔다. 또한 북층으로 디자인 된 (주)아이피에스 부스에 많은 참가



업체 및 참가준비 업체에서 방문하여 부스제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세미콘 타이완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부스 디자인 업체 후보에도 올랐다. (주)아이피에스는 2011 세미콘 타이완에서는 금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생산성의 장비 개발로 더욱 경쟁력 있는 글로벌 (주)아이피에스 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전시회를 기대해 본다.

**상반기 매출 1천억 달성**

(주)아이피에스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주행진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아이피에스는 지난 분기에 반도체와 LCD, 태양광장비 등을 포함해 모두 977억원어치를 수주했고 2/4분기에도 665억원의 신규수주에 따라, 상반기에만 매출 1천억 달성을 하였습니다.

1천억 달성에 대한 이유는 먼저 전기대비 매출액 (275.9%) 및 영업이익 (1,479.4%), 전년동기대비매출액 (2,948.9%) 및 영업이익 (흑자전환) 증가와 수주량 증가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판

매호조와 시장점유율 증가로 사상 최대 반기 매출인 1천억 달성의 기쁨을 토했습니다.

**사내 어학교육과정 실시**

2010년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비즈니스 영어 회화반 중급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주)아이피에스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첫 단계로 비즈니스 어휘능력, 커뮤니케이션과 어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 및 회사역량 뿐 아니라 자신 개인어학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내 어학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영어 뿐 아니라 일본어 및 중국어 과정의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과정 도입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아토**

**PECVD 1000억 달성 기념식**

지난 8월 20일 (주)아토에서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 육성에 따른 PE-CVD 매출 1,000억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아토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 임직원들과 (주)아토의 협력사 임원들까지 대거 참석하여 이날의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주)아토는 이날 기념사

를 통해 “반도체 장비 단일 제품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것은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력사의 협조와 무엇보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 육성이라는 뒷받침을 해 준 고객사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아토는 삼성전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2차 협력사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복플러스 봉사활동 실시**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유명한 (주)아토의 한마음봉사단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선물 포장 및 송편만들기를 지난 9월 18일에 실시하였다.

많은 아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명절 전 훈훈한 아토인의 정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었다.



## (주)원익머트리얼즈

### “조직마인드 함양과정” 집합교육 실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조직마인드 함양과정” 집합교육이 실시되었다. 1차 신입사원 집합교육에서는 원익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의 자세와 마인드 확립 및 업무역량, 휴먼역량, 팀웍 등 조직구성원에게 필요한 다차원적 역할을 체험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역량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2~4차 집합교육에서는 “조직마인드 함양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에게 조직인으로서의 마인드와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시너지를 위한 개개인의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직원들은 이번 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로써 (주)원익머트리얼즈 직원 모두가 좋은 교육을 통해 열정과 창의를 통한 원익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앞으로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시너지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개개인의 역량 발전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다.

### You Funny Day 행사 실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7월 23일 전 임직원이 함께 하는 “+ You Funny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3가지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로 경영성과발표회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경영성과 및 경영계획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발표회에 이어 2차로 앞으로의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새로운 터전이 될 제 2공장 부지인 전의산업단지를 함께 견학함으로써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부지 견학 후 함께 본격적인 + You Funny Day 의 마지막 일정으로 임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hoi day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직급간, 부서간, 업무간의 벽을 모두 허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듦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화합의 장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준열 대표이사는 이번 “+ You Funny Day”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임직원들간의 단합과 열린 소통이 곧 (주)원익머트리얼즈를 건강한 기업, 행복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긍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위닉스

### 2010년 역할전환의 날 개최

(주)위닉스는 7월 14일 2010년도 역할전환의 날을 개최하였다.

구미공장 잔디밭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바비큐 파티와 호프 등의 음식을 마련하고 족구시합 및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져 음식과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상반기 목표달성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임원 및 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봉사하는 역할전환(Role Switching)이라는 이색적인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바쁜 업무일정으로 고생이 많았을 직원들이 그 동안의 고충을 털어내고, 직원들간의 화합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디비코(주)

### 안드로이드 기반 '티빅스' 출시 예정

디비코(주)(대표 이지웅)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 기반의 티빅스 플레이어(모델명 A1)를 내놓는다. 지난해 말 애플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소개되면서 애플 대항마로 급부상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PC, PMP, 내비게이션, 스마트TV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디비코(주)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안드로이드 티빅스를 오는 12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시 예정인 티빅스 A1은 기존 티빅스가 가지는 플레이어 성능은 기본이며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다른 모바일 기기와 마찬가지로 오픈 API환경을 제공해 개발자가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다양한 멀티 태스킹 기능과 3D UI구현도 가능하다.

디비코(주)는 활용이 좋고 안정적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티빅스 플레이어 출시를 위해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룹, 관련 업계와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웅 사장은 "안드로이드 돌풍 상황 속에서 누가 실용적이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이번 제품 개발로 GPS와 폰 기능 API를 포함하지 않은 자바 기반 앱들은 즉시 티빅스 기반으로 동작하고 앱 스토어에 등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합 체육행사 실시

디비코(주)는 10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회사 근처 황새울공원에서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하



여 단합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팀과 B팀 두팀으로 나누어서 축구, 피구, 발야구 등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인 3각 릴레이 경기를 통해서 단합을 확인하면서 체육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 후 회사 근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 겸 회식을 진행하며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감하였습니다."

#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가 경쟁력입니다”

세계 경영학계의 대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에서 기업문화는 기업의 가슴이자 얼(soul)이며, 기업문화가 곧 기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기업문화란 기업에 스며있는 철학과 분위기,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다.

(주)원익 구자규 대표이사

“근본적인 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중심의 문화가 없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이 나올 수 없어요.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주)원익은 세계 일류기업, 기업문화 선진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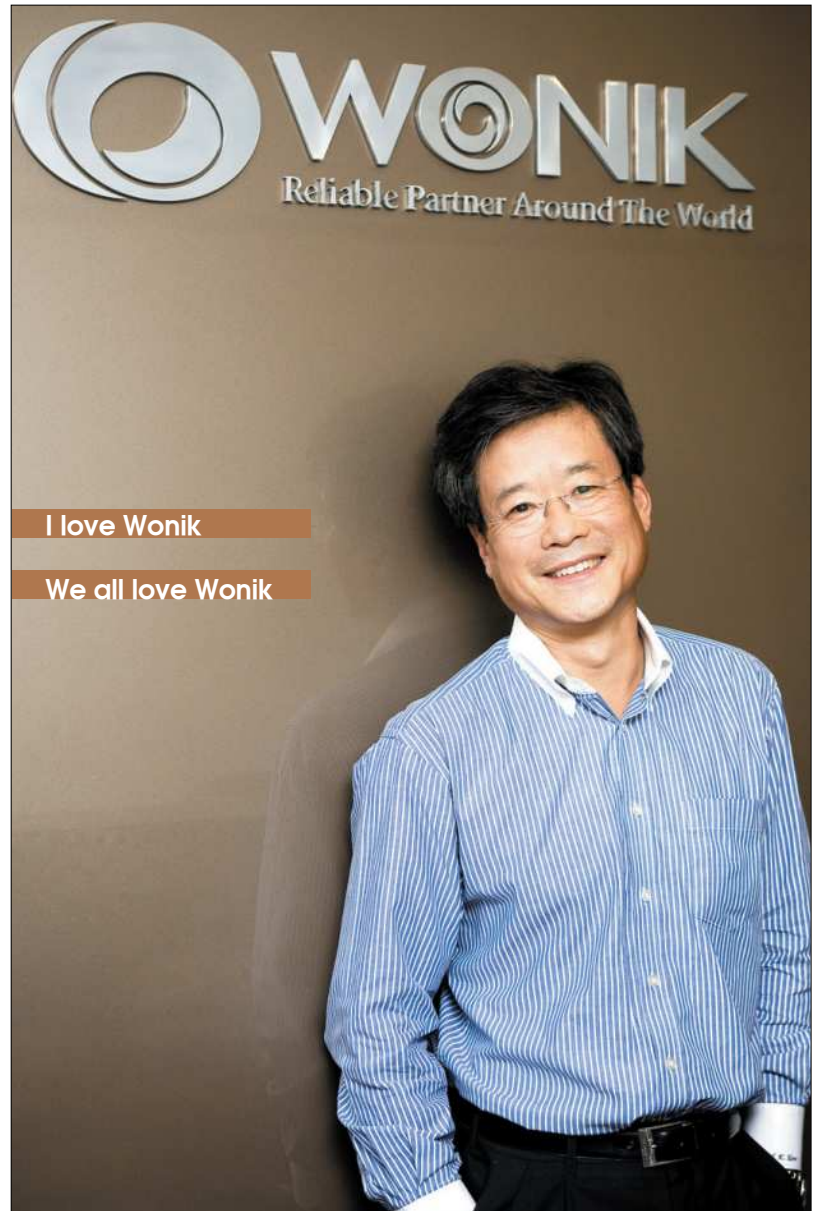
올해 2월 (주)원익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자규 사장은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리더 또한 상명하달식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개인의 창의력을 북돋워줄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것이다.

구 사장이 지난 26년간 글로벌 기업인 GE에 몸담고 있으면서 실천한 경영철학도 바로 이것이다. 많은 이들은 GE의 CEO였던 잭 웰치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잭 웰치는 기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동시에 혁신을 가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주로 기업문화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구 사장은 이러한 혁신기에 GE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세계적인 기업의 혁신 방식을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균형적인 혁신-직접 배우고 자신의 경

영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구 사장은 2000년 GE메디컬 아시아 초음파 사업본부장 때 당시 6500만 달러였던 매출을 1년 만에 9500만 달러로 끌어올렸고, 2001년 GE메디컬 아시아 끝밀도 측정기 사업본부장을 맡아 200만 달러이던 매출을 1000만 달러로 늘렸다. 또 2005년부터 5년 동안은 GE클리니컬시스템 아시아총괄 사장을 지내며 중국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글로벌기업과 로컬기업의 차이도 사람에서 나와요. 글로벌기업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로컬 기업은 아직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글로벌기업의 문화를 현지 문화와 조화 시키는 Glocalization (Global + Localization)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구 사장은 앞으로 글로벌기업을 이끌었던 그간의 경영노하우를 (주)원익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유감없이 쏟아 부을 계획이다.

**가족 같은 문화로 하나 되는 기업 만들기**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 실천을 위해 구 사장이 (주)원익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를 위해 구 사장은 한국 고유의 끈끈한 정(情)과 구수한 장맛이 느껴지는 '가족 같은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前)직장에서도 가족문화(Family Culture)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서로 허물이 없고, 작은 일 큰 일 모두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 어려워하지 않고 가깝게 느껴야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직원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다. 직원들의 창의력은 일의 즐거움에서 나온다. 가족문화 내에서는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 사장은 하루에 4-5번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간다.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직원들과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 이 또한 구 사장의 오랜 경영습관이다. (주)원익에 첫 출근해 임직원들을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얘기도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나?"는 것이었을 정도로 구 사장은 자신부터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배다. 가장(家長)이라고 할 수 있는 CEO가 미소로서 구성원들을 대한다면 가족문화가 직장 내에 정착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창의성 이끌어낸다**

어느 대기업에서 CEO가 임원들에게 "왜 의견 제시를 안 하십니까?"라고 묻자 부사장이 "의견 제시를 하던 임원들은 모두 퇴사했습니다."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된 회의문화를 조소(嘲笑)하는 우스갯소리일 것이다.

구 사장은 "회의를 할 때도 사장이 하는 말을 마치 어둡처럼 받아 적는 필기습관을 버리고, 노트 없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보자"고 구성원들에게 제안했다. 구 사장이 먼저 넥타이 대신 와이셔츠의 윗 단추를 푼 소탈한 차림으로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와 유머로 회의를 주재했다.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직원들도 편안한



복장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회의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다.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창의성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CEO나 임원들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 동안 얼마만큼 수용했는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들도 자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보았는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직된 문화 속에서 결코 창의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화가 되었을 때 비로

소 창의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들여다봐도 '토론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구 사장은 '자유로운 토론문화'의 정착이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다.

**천천히 스며드는 기업문화 만들 것**

구 사장은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야 진정한 기업문화가 된다"고 덧붙이면서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길게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바꾸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한다. 기업의 비전과 철학은 일관성 있어야 하고,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해나가야 한다.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종업원의 행복 등 개인 비전도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할 것도 분명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이미 (주)원익 내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원익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 진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가 회사 장래 비전에 대해 "현재 수준 이상 좋아진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 이상의 응답자가 "원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60% 이상이 "자신의 상사는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동료애가 있으며, 부서 내 상하간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구 사장은 당장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는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도록 해야겠지요. (주)원익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렸어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 일류기업, 기업문화 선진기업으로 나아갑시다"

CEO로 취임 한 직후 직원들에게 'I love Wonik, We all love Wonik'의 슬로건을 제시 한 구자규 사장에게서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 “입신(入神)을 넘어 십단(十段)을 정복한다”

제 6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식이 지난 9월 3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대회를 후원하는 원익의 이용한 회장을 비롯해 공동주최사인 경향신문사 정동식 전무와 바둑 TV의 김계홍 사장,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기원 한상열 사무총장, 그리고 대회에 출전하는 많은 프로기사 등 200여명이 참가해 올시즌 십단전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용한 회장은 “좀 더 많은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선 진출자를 5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5기에 비해 대회 규모 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프로기사 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더 많은 명승부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번 대회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표명했다.

사실, 제 6기 십단전에서는 기존의 대회방식인 차등시드제 (피라미드토너먼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선 총 상금규모를 지난해 6천 500만원에서 9천 26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준우승상금도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회 총 규모를 3억 9천만원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3대 기전에 진입하였다.



상금인상 이외에도 전년도 44강 토너먼트에서 제 6기 대회부터는 56강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프로기사들이 본선무대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 성적 우수자 차등 시드를 8강과 16강에서 16강에서 32강으로 한 단계씩 낮추어 좀 더 새로운 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6기 원익배 십단전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의 예선전(1~3회전)을 시작으로 최종 본선 진출자 56명 (시드배정자 5명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며, 본선 및 결승은 2010년 9월말부터 2011년 3월까지 열릴 예정이며, 바둑 TV에서 10월초부터 결승전이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총 47회 방송을 실시하여 결승을 포함한 거의 모든 본선 경기를 많은 바둑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바둑 TV 방송일정은 본 방송의 경우 매주 월/화 (22:00 ~ 24:00) 중계 예정이며 준결승 및 결승 3번기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제 5기와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에 원익배 모든 경기의 기보게재 및 해설란을 별도 편성하여 대회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사와 바둑 TV가 공동 주최하는 원익배 십단전은 우승상금 5천만원, 준우승 상금 2천만원 등 대회 규모 면에서 국내 전체 기전 중 3위에 해당되는 본경기전이며, 역대 우승자로는 제 1기 우승 이창호를 시작으로 2기 안조영, 3기 이창호, 4기 및 5기 우승은 박정환이 차지하였으며, 제 6기 대회는 원익 계열사 4개 회사 (신원종합개발(주), (주)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원익투자파트너스(주))가 후원한다.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 SECTION 01 Dream

18

Special Edition

2010 국제반도체대전(I-SEDEX) 원익 4개사 참가  
국산제품 경쟁력 입증한 원익의 기술력 돋보였다



22

Power of Wonik Technique

㈜아토 PE-CVD 1000억 달성 기념

20

Wonik Training Program

원익교육  
2010년 하반기 리더십 교육 실시



24

Wonik Dissertation

㈜원익쿼츠 장철우 상무  
차세대 고효율 LED 및 고효율 전기소자용 GaN 단결정 개발 동향



# 국산제품 경쟁력 입증한 원익의 기술력 돋보였다

국내 최대의 반도체산업 전시회인 “국제반도체대전(i-SEDEX)”이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설계·장비·재료 분야의 최첨단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술 경연장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총 160개 업체가 참가했다. 원익은 (주)원익퀀츠, (주)아토, (주)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등 4개사가 참가해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앞당기는 반도체와 관련 산업의 첨단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에서 원익은 앞선 기술력과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장비로 저력을 다시 한 번 뽐냈다.

4개사가 한 자리에 모인 원익 부스는 각 업체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원익의 이미지를 담은 블루컬러와 신뢰와 안정을 주는 화이트컬러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춰 더욱 눈길을 끌었다. 내부가 탁 트인 원익 부스에서는 전시기간 내내 4개사 임직원들이 원익의 화합된 힘과 열정을 보여줘 관람객과 바이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전시회 첫날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주)아토, (주)아이피에스 이문용 사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사장 등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을 맞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원익의 4개 계열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최신 기술을 조망하는 한편 국내외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전시회 기간 내내 원익의 부스에는 반도체와 LCD 관련 회사, 장비제조사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각 부스마다 여러 건의 견적 요청과 방문 상담 요구가 이뤄졌다.

## 국산화에 성공한 원익 제품들 더욱 눈길 끌어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제품들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국산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원익의 노력이 더욱 빛이 났다.

(주)원익퀀츠는 고부가가치 퀀츠웨어(Quartz Ware)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퀀츠웨어의 국산화에 성공, 세계 3대 퀀츠웨어 공급업체로 손꼽힌다. 국내 퀀츠웨어 점유율 1위의 자리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원익퀀츠는 Tube, Boat, Cap, Bath, Accessory, Etch Part 등 각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을 전시해 반도체 제조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국내 최초 양산 시스템을 갖춘



300mm 웨이퍼를 부스 안에 전시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인 (주)아토는 올초 국내 장비 업계 처음 핵심 전공정 장비인 플라즈마화학기상 증착장비(PE-CVD) 누적 출하량 100호기를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후공정 장비를 제외한 고부가 전공정 장비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동일 모델로 100대를 판매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다. (주)아토는 'MAHA-HP1' 라는 PE-CVD 장비를 개발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PE-CVD 시장에 뛰어 들기 시작, 지난 2006년부터 성능을 높인 'MAHA-HP2' 을 출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해외 장비 업체들의 독무대였던 PE-CVD 시장에서 국산 장

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ALD(Atomic Layer Deposition) 시스템을 반도체 공정에 적용한 (주)아이피에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태양전지(Solar cell), 8세대용 드라이에처(Dry etcher, 건식 식각장비)와 같은 (주)아이피에스만의 핵심기술을 선보였다. 많은 바이어들이 주목한 8세대용 드라이에처는 40인치 이상의 대면적 LCD TV용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최적의 공정 균일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장비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아이피에스는 해외수출 계약을 체결해 국내외 유수의 장치제조사(Device Maker)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주)아이피에스는 지속적으로 차세대 장비에 대해 연구 개발해온 결과 300mm 장비시장에서도 양산성을 인정받았다.

반도체 및 TFT-LCD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제조업체인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그동안 NH<sub>3</sub>, N<sub>2</sub>O, CO, PH<sub>3</sub> 등의 고순도 및 특수가스와 수소, 산소, 헬륨, 아르곤 등의 혼합가스를 제조·공급하면서 큰 성과를 올려 국내의 특수가스업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도체·FPD·LED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가스를 생산, 공급하는 과정을 자세한 그림과 도표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화된 기술, 제품경쟁력, 전문인력을 갖춰 수입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해 온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금도 지속적인 투자와



가스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국산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대 행사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비즈니스 상담회, 국제세미나, 기술세미나 등이 열려 호황을 이뤘다. 13일부터 이틀 동안 별도로 마련된 무역 상담관에서는 미국 인텔, 중국 SMIC, 대만 ASE 등 해외 약 20개사 구매담당 임원을 초청해 국내 회사와 일대일 수출 상담회가 열렸으며, 반도체 차세대 공정장비기술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추계 학술대회, 세정기술세미나 등 학술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 2010년 하반기 리더십 교육 실시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2개 과정 실시

2010년도 상반기 실시된 "신규입사자 과정, CEO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에 이어 9월 임원 리더십 과정과 10월 팀장 리더십 과정 등 2개 과정이 실시 되었다.

국내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2009년도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위기에 강한 기업으로 변화' 하는데 필요한 경영의 핵심요소 및 임원/팀장으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창의/도전열정/공정투명'의 원익 기업문화를 깊이 인식하고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각 계열사의 임원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모든 교육과정이 실시 되었으며 9월 7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임원 리더십 과정이 10월 5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팀장 리더십 과정이 실시되었으며 임원 및 팀장 총 50여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특히, 상반기 실시된 모든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원익 회장 특강시간 및 기업문화 전파 과정을 편성하여, 최고 경영자이신 이용한 회장께서 직접 교육장을 방문하여 모든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기업문화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 모든 교육과정에 올해 강조하고 있는 원익 기업문화 핵심 요소인 '창의/도전열정/공정투명'의 내용을 연계하여 창의적 혁신의 실천, 프로정신 및 도전정신, 공정 투명한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실천 항목 등을 포함하였다.



## 임원 리더십 과정

9월 7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과 변화하는 나, 가치창조 경영 및 도전적 경영환경과 전략경영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여러 계열사의 임원들과 팀을 형성하여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등 이론강의 보다는 실습을 통한 실행력 강화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날 기회가 없었던 타 계열사 임원들과의 Networking 등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산악 목표달성 훈련을 위해 교육장 근처에 위치한 계방산을 등반하며, 평소 소홀히 할 수 있는 체력 단련 및 팀 과제 해결을 통한 팀워크 형성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교육 참석자 모두 아무 안전사고 없이 정상까지 등반을 성공하였다.

## 팀장 리더십 과정

10월 5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팀장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팀장급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능력, 변화/혁신 주도, 전략적 사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칭찬의 기술 및 코칭을 통한 팀성과 향상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팀장이라는 직책 하에 조직 및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통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 임원 리더십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3일차 실시된 산악 목표달성 훈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대산 정상까지 모든 교육생들이 등반하며 팀별 목표달성 훈련을 실시 하였다.



9월, 10월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 및 팀장 리더십 과정을 끝으로 2010년도 리더십 교육 과정은 모든 종료 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신규입사자 과정을 비롯하여 각 계층별 리더십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 (주)아토 PE-CVD

## 1000억 달성 기념

반도체장비 생산전문업체인 (주)아토가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장비(PE-CVD) 수주 확대로 1000억원 매출을 돌파했다. 이에 (주)아토는 지난 8월 20일 '반도체장비 국산화 육성에 따른 아토 PE-CVD 1000억 달성 기념식' 을 갖고 전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협력사의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MAHA HP I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시화산업공단에 위치한 (주)아토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반도체장비 국산화 육성에 따른 PE-CVD 매출 1000억원 달성 기념식이 열린 것. 지난해 100호기 출하를 돌파한 PE-CVD 사업의 지속적인 호조로 (주)아토는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인 1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주)아토의 주력제품인 PE-CVD는 반도체 절연막을 생성하는 TEOS 공정과 미세 패턴 구현을 위해 자외선 반사막을 증착하는 ARC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특히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두 개 공정용 PE-CVD의 70% 이상을 (주)아토가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이 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주)아토의 임직원 및 삼성전자 반도체담당 임직원들과 (주)아토 협력사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아토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02년 4월 PE-CVD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래, 반도체장비 단일 제품으로 이 같은 매출을 달성한 것은 임직원들의 노력도 있었



MAHA SP II

지만, 협력사의 협조와 무엇보다 반도체장비 국산화 육성이라는 뒷받침을 해준 고객사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2010년 경영슬로건을 '1등 기업의 위상 정립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혁신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도 전했다.

이어 (주)아토는 삼성전자 황득규 상무이사로부터 '1000억 수주기념 주문서'를 전해 받고, 2차 협력사에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삼성전자 황득규 상무이사는 축사를 통해 "국산화한 반도체장비로 매출 1000억원 달성은 의미가 매우 크다.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다"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자체개발력을 강화해 세계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삼성전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PE-CVD 1000억원 달성'의 주역인 (주)아토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도 마련됐다. 박중균 영업팀장은 고객사와 아토 간의 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공정에 MAHA SP 설비를 적용해 시장 확대 및 매출

1000억원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명규 CS 부장은 고객 지원 담당 부장으로서 CIP 아이템 발굴 및 해결로 정지 로스율 5%달성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종호 CT팀 부장은 신규 부품 및 소재 발굴을 통한 최적의 설비 구성을 해 2009년도 히트 제품인 MAHA SP 장비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서관동 구매팀 부장은 설비 납품 기일 준수를 위해 SCM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개선하고, 부품 수급문제 발생 시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적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철민 AT팀 과장은 연구소 공정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공정 적용, 전환 시 설비 콘셉트에 적합한 공정 조건을 신속히 확보해 양산 적용을 원활하게 진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주)아토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진위산업단지' 내 부품연구소를 포함한 R&D 센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차세대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 장비이력관리 시스템 및 SCM, SRM 구축, 핵심인력 양성과 기업문화정립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글 정창욱·사진 조인기



MAHA SP

# 차세대 고효도 LED 및

# 고출력 전기소자용 GaN 단결정 개발 동향

## 1. 서론

지난 60만년 동안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평균농도는 300ppm 이상 기록된 적이 없었지만, 근현대사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

이 현재 이산화탄소의 평균농도가 385ppm까지 기록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10ppm 증가할 때마다 지구의 온도는 0.5℃ 상승한다고 보고된다. 현 추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된다면 향후 100년 이내에 5.8℃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전체 생명체의 많은 수가 멸종하여 재앙적 파국을 초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된 사용이 최대 관건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광등은 80lm/W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LED는 90lm/W - 100lm/W 정도이며, 이론적으로 270lm/W까지 가능하다. 아직까지 이런 변환 효율로는 LED가 형광등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LED가 형광등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변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변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 LED 광소자의 내부 양자 효율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기존 사파이어 단결정 기판 위에 이중의 GaN Epi 층을 쌓아 올리는 것은 서로 다른 이질층이 갖는 격자 부정합으로 인해 GaN Epi층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이유가 양자 효율성(Quantum

그림1. 대기중의 평균 이산화탄소 및 기온 변화



자료 : IPCC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efficiency)을 떨어뜨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기 변환 효율에서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Buffer layer를 성장시키는 기술과 GaN 단결정 기판위에 동족의 GaN E Epi 층을 쌓는 방법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사파이어 기판 기반 LED에서 GaN E Epi 층은 서로 다른 이중의 조합으로 Epi 층의 결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GaN 자체가 워낙 Wide band Gap을 갖는 물질이라서 기본적으로 P-doping이 어렵다. 이는 효율 저하와 Carrier over flow의 원인이 되어 GaN에서 피에조-일렉트릭 필드를 형성시킨다. 이 문제로 인해 전자와 정공의 공간적 분리에 의해 재결합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너무 얇은 Quantum Wall layer로 인한 Droop 현상을 가속시킨다. LED의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에조 전기장이 없

는 무분극(non-polar)기판을 채용해야만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무분극 기판은 기판에 극성이 없다는 것인데 기판의 앞뒤를 비교해 봤을 때 N와 Ga이 골고루 섞여 있어 구분이 없는 것이다. 현재 사용화된 기판 위의 GaN은 앞면은 Ga 뒷면은 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리적 문제들은 무분극 기판을 사용하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품위 에피층을 성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개발된다면 양자효율의 증가와 도핑의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 등에서는 무분극 웨이퍼(Wafer)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Buffer layer 추가는 곧 추가공정으



로 인해 제작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GaN 기반위에 동일한 GaN Epi 층을 쌓는 것이 아직은 고가이지만 추가 공정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기존 공정으로 고효율 저비용 LED 제작이 가능하여 본격적인 LED 조명시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GaN 단결정 기판을 이용하여 LED를 제조할 경우 다이오드의 두 전극을 아래/위로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자의 제조 공정이 간단해질 수 있다. 또한 GaN 단결정 기판으로 소자를 제조할 경우 사파이어 기판의 사용으로 인한 열의 발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자의 패키징에도 유리하다. 최근에 이러한 GaN 기판을 사용하여 발광 다이오드와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작을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사파이어 기판을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다.

전력 반도체 소자에 있어 기존 Si, SiC 단결정 기

반의 전력 변환용 스위칭 소자가 사용되어 왔다. 향후 전기자동차에 사용될 전력 변환용 스위칭 소자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요구된다. 기존의 Si, SiC 소재 기판으로는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은 저항 특성 및 변환 효율적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가령 전력 변환 소자(DC Inverter)가 기존 Si기반 소자에서 GaN 기판으로 바뀌었을 경우, 전력 손실을 5%에서 1.5%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전력 손실 절감은 100마력의 차량인 경우 3.5kW에 해당된다. 현재 전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격히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들이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까지 이런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의 Battery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이 효율성 및 전력 손실 절감으로 귀결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aN 소재가 필요하다.

그 외 차세대 이동통신 및 군사용 레이더 제작에

사용되는 RF소자에서도 GaN 기반 소자가 기존 Si / SiC 기반의 Rf소자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기술 동향

GaN으로 대체하려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분말승화법, 플럭스법, ammono-thermal 법 HVPE 법 등이 있으나, 대형 고품질의 단결정은 ammono-thermal 법과 HVPE 법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GaN 단결정 성장법

① HVPE (hydride vapor phase epitaxy)법  
HVPE는 GaN 성장과정에서 Ga과 N의 Precursor들의 기상 이동(vaportransport)과 반응에 의한 비

그림2. Si, SiC 에너지 효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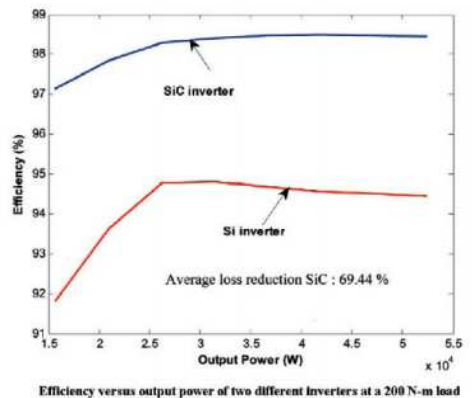


그림3. Si, SiC, GaN에 대한 비저항

### Comparison of R<sub>on</sub> for Si, SiC, and 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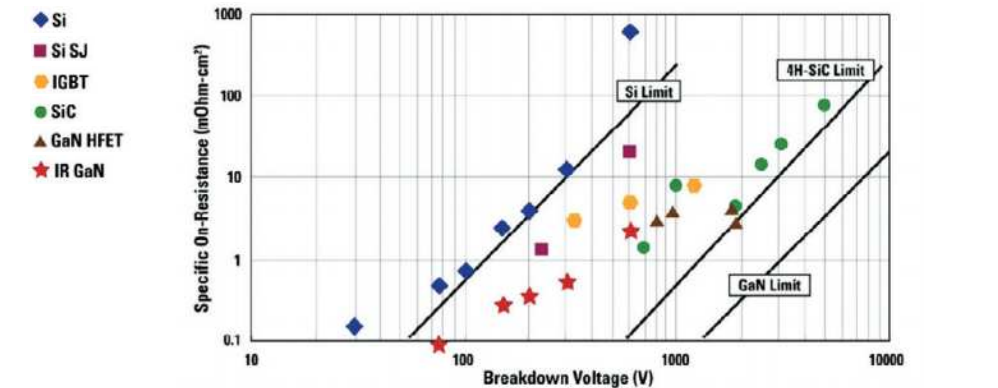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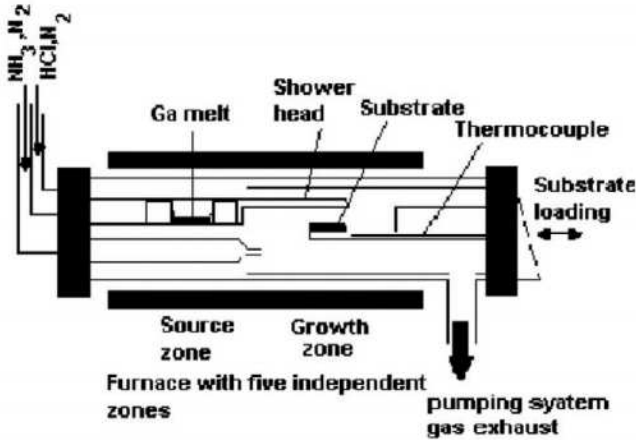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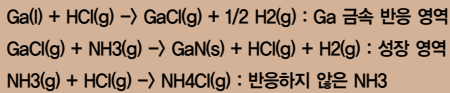


그림 4. HVPE 성장법



평형(non-equilibrium) 성장 방법으로 Maruskar 등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Ga 금속에 HCl기체를 반응시켜 GaCl 기체를 만들고 이를 성장 영역으로 이동시킨 후 NH3가스와 반응시킨다. HCl, GaCl, NH3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송 기체(carrier gas)로 N2, H2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본적 HVPE 반응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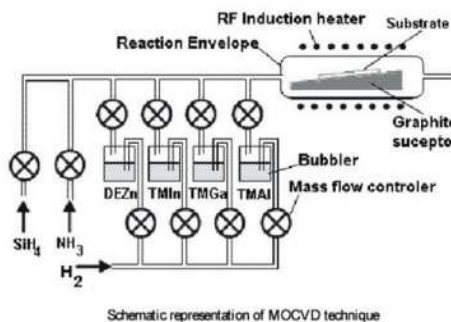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GaN, NH4Cl, HCl, H2가 얻어지며 단지 GaN 만이 성장 온도에서 기판 위에 물리적으로 증착된다. 성장 온도 5족/3족비, 가스의 이동 속도 등 성장 변수의 경험적인 최적화 외에 Reactor 설계가 복잡해야만 HVPE에 의한 고품질의 GaN 단결정 성장이 가능하다.

② MOCVD

MOCVD는 그림 5와 같이 전구체를 기화시킨 다음 기판의 표면까지 이동시켜 기판의 표면에서 결정이 성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GaN을 성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MOCVD법에서 3족 공급원으로 TMG (Trimethylgallium)나 TEG (Triethylgallium)와 같은 MO 전구체를 사용하여 5족 공급원으로는 암모니아(NH3)를 사용한다. MOCVD는 박막 형성 반응에 사용되는 반응가스의 공급원이 유기

그림 5. MOCVD 성장법



금속전체로 낮은 온도에서 공급원의 분압이 높고 분해가 잘되는 장점으로 인해 박막 증착 시 반응 가스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고순도로 정제된 공급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되는 박막의 특성을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기금속 공급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저온에서 휘발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MO 공급원을 사용하면 기존의 CVD에서 3족 소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액체 Ga 나 In을 사용하고 HCl 가스를 이용하여 기판에 공급하는 GaCl이나 InCl과 같은 반응 가스의 양을 조절할 때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③ MBE (Molecular Beam Epitaxy)법

MBE는 단결정 막을 성장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로 1960년대 Bell 연구소 J.R Arthur, Alfred Y. Cho에 의해 발명되었다. MBE는 high vacuum, ultra high vacuum (10<sup>-8</sup>~8Pa)에서 진행되며 분당 1000nm이하의 성장율을 갖는다. 사파이어와 SiC 기판을 사용하여, 그림 6과 같이 ECR 플라즈마(Electron Cyclotron Resonance Plasma) 상태의 N2가 Chamber내에 투입된다. 이때 압력은 약10<sup>-4</sup>Torr 이며, 온도는 600 ~ 650℃ 정도이다. 막박 성장 온도보다 100℃ 정도

그림 6. MBE 성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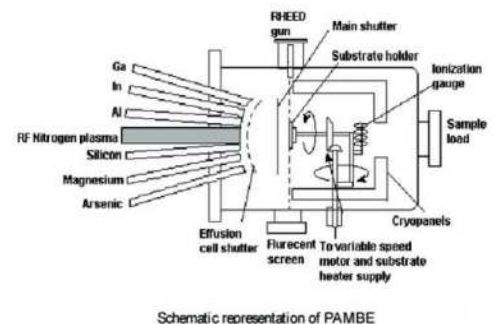


표 1. 세계 업체들의 GaN 단결정 기판 기술 수준 비교

	Sumitomo(일)	Hitachi(일)	Cree(미)	lumilog(프)
성장 방법	MOCVD/HVPE	MOCVD/HVPE	HVPE	HVPE
결함감소 방법	ELOG	ELOG	-	ELOG
성장속도(um/hr)	100	80	100	50
최대 성장두께(mm)	0.8	0.5	2	1.2
사파이어 제거 방법	Etching & Grinding	VAS	LLO	?

고온으로 가열한 상태에서 H2 플라즈마 식각 (Plasma etching)을 수행한다. MBE로 성장된 GaN 박막은 MOCVD 방법으로 성장된 박막보다 결정성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나 잔류 전자 농도에 있어서의 특성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두께의 미세 조절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GaN 박막의 in-situ 분석도 가능하다.

④ Ammonothermal법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시작된 NH3를 이용하여 GaN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당시 500℃, 400 ~ 500MPa의 압력에서 Ga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금속 Ca와 NH3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GaN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높은 온도에서 승화시켜 GaN 단결정을 성장하는 방법으로 대구경 벌크 GaN 성장은 어렵지만 성장된 결정의 품질이 우수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대구경 성장용 Seed 성장으로 응용 가능하다.

⑤ 고온고압법

폴란드의 High Pressure Research Centre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12,000 ~ 20,000기압의 압력과 1,700 ~ 2,000℃의 온도에서 Ga내 질소의 용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GaN 단결정을 두께가 100um이고 외경이 10mm인 판상의 결정을 성장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품질은 우수하지만 대구경의 제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⑥ 플럭스법

일본 동북대의 Yamane교수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성장법으로 플럭스를 사용하여 1000℃ 이하의 비교적 저온에서 수백 시간 성장시켜 크기 10mm 정도의 판상의 GaN를 얻는데 대구경 벌크 GaN 단결정 성장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국내의 기술동향

1990년대 말 일본 NEC사에서 HVPE법으로 2인치 크기의 GaN wafer제조 가능성을 열어, 2000년대 일본 Sumitomo, Matsushita, Hitachi, 미국 Cree 프랑스의 Lumilog, 한국의 삼성이 2인치 GaN 기판 개발을 시도하는 실험 수준의 기술

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며, 일본 Sumitomo사는 일부 GaN기판을 제작 시판하고 있으나 아직은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진다. 표 1

일본 Hitachi사는 일본 NEC사에서 기술이전을 받았고, 미국 Cree사는 2004년 미국 ATMI사의 GaN 부문을 인수하였다. 전반적으로 HVPE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MOCVD와 ELOG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시장 전망

그림 7

GaN 기판 시장은 아직 양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산출은 어렵고 대신 GaN 소자시장에서 유추할 수 있다. GaN 기판 시장은 크게 일반 조명용 LED, LD (Laser Diode) 시장, 전력소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효율 LED는 2010년경에 5조원의 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향후 일반 조명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시장은 더욱 커져 30조 이상까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

그림 7. GaN 기반 전력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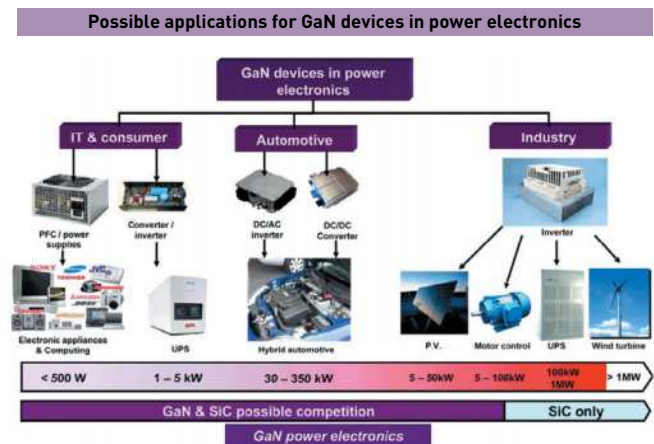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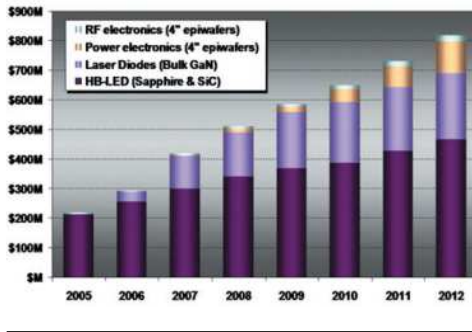


그림 8. 2005 - 2012 사파이어, GaN 기판 매출액



다. 그림 8 기존의 사파이어 기반의 LED를 GaN 기반 고효율 LED가 서서히 대체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소자 시장은 2008년에 형성되어 전체 소자 시장의 2%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GaN LD 시장도 2006년 경부터 형성 되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 1) LED 시장

질화물반도체 LED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시장 성장률이 약 24%으로 추정되며, 세계시장 규모는 표 2에서 보듯이 2010 년도에는 약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고급 승용차의 50% 이상에서 계기판, 차량 내외 장식용 조명들이 고효율 LED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보급형 자동차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단색광 LED로서 휴대폰의 BLU은 이제 full color display와 백

색광 LED조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일반 조명 시장의 규모는 연간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경쟁기술인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에 LED가격이 비해 2009년 기준 4.5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이 일반 조명용 시장은 GaN 기반 고효율 LED 제조 단가에 의존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LD 수요

차세대 DVD 광원으로 사용되는 5mW급 405nm 청자색 LD를 상용화시킨 업체는 Nichia와 소니 두 업체뿐이다. 30mW급 역시 Nichia와 소니가 상용화 최초의 상용화 시작한 업체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전기에서 청자색 LD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한때 HD-DVD와 Blue-ray가 경합을 벌리다가 거의 Blue-ray가 승리했다. LD용 GaN 시장은 이미 2006년부터 18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10년 2,0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 3) 전력 반도체 및 RF 소자 수요

현재 대부분 응용 분야는 Si, GaAs 소자에 의해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GaN 전자 소자로서 시장 형성에 장애물이 되었다. 또한 대부분 응용 분야가 SiC 소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iC

보다 GaN가 고주파 쪽과 저잡음 파워 소자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응용 분야로는 고온, 고주파 전력소자, 파워 스위치 및 파워 정류기를 들 수가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연구 개발 단계로 5년 후이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맺음말

질화물반도체 LED의 경우 신 호등, 전광판, 핸드폰 등의 제품으로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다. 또한, 질화물반도체 조명이 조만간 가시화 된다면 전력사용이 획기적

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질화물반도체관련 학술 문헌과 특허 건수를 살펴 보면, 점차 발표 및 출원건수가 증가하여 1998년부터 세계특허출원건수가 400건을 넘고 있으며, 1999년에 피크를 이루고 있다. 그 후에는 40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어 실용화에 접근하고 있음을 대변하여 주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질화물반도체 전세계 특허의 약 2/3를 출원하여 기술선진국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질화물반도체는 기술측면에서 보면 성장기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 있으며, 제품 측면에서는 도입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용도가 다양하여 기술 파급도가 매우 크고,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질화물반도체산업은 고성장율, 성숙기초기단계 산업이므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산업분야 등과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한다면 수입을 대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GaN 기판 세계시장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명용 LED (High Power)	612	1,189	2024	3,088	4,265
GaN LD	186	402	750	1040	2020
GaN 전자소자	64	129	166	215	277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역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 SECTION 02 Challenge

SECTION 02



**32** Excellent case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인재와 타이밍에 주력했던 정통CEO

**30** Wonik's Dream Team  
다비코㈜ PVR SW팀  
"사람을 위한 더욱 편리한 기술을 만듭니다"



**34** Self Innovation Note  
㈜아이피에스 개발지원팀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



# “사람을 위한 더욱 편리한 기술을 만듭니다”

디비코(주) PVR SW팀은 디박스 플레이어와 PVR로 대표되는 디비코(주)의 주력 제품인 티빅스(TViX)™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팀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욱 편리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이 앞선 기술을 만들어내고, 회사성장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얼핏** 도서관 같은 엄숙한 분위기지만, 파티션 너머로 조용조용 업무협업의 기운이 오가고, 간간이 웃음소리가 들린다. 또 삼삼오오 사뻐한 걸음으로 휴게실로 옮겨가 티타임을 즐기기도 한다. 또 사내통합메신저(skype)를 이용해 팀원들끼리 경조사도 그때그때 체크한다. 디비코(주) PVR SW팀의 일상 풍경이다.

디비코(주) PVR SW팀은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 중인 티빅스(TViX)의 핵심 소프트웨어(임베디드 펌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팀장인 윤운용 수석을 비롯해 박정우 선임, 박재범 선임, 강대경 선임, 안주정 선임, 김성태 사원 등 총 6명의 팀원이 함께 일한다.



##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시대, 팀원들도 멀티 플레이어

먼저 팀에서 윤운용 수석이 맡은 일은 PVR 파트 개발 및 총괄 업무, 그리고 박정우 선임은 OS 시스템 및 인터넷 기반 Application 파트 등 시스템 개발, 박재범 선임과 강대경 선임은 UI Application, PVR & Media Player 파트 등 Application 개발, 안주정 선임과 김성태 사원은 S/W 품질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및 바이어 요구사항 수집 등의 품질보증(QA) 업무다.

팀원들은 수많은 사용자와 바이어들의 요구를 수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S/W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생산라인의 제품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산 및 테스트 관련 S/W도 병행 개발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출하가 이뤄지도록

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또 기술적 난제들을 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이 쌓인 전문 엔지니어들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팀 파워 또한 바로 우리 팀원들입니다.”

윤 수석은 팀원들을 한 마디로 “무장한 정예 멤버들”이라고 자랑한다. 팀원들은 개발팀 팀원답게 엔터테인먼트나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은 기본, 항상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대부분이 C++/C/Java 언어에 능숙한 S/W 엔지니어들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임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 경험과 적응력이 뛰어나고 Linux /Windows/Android등 상용·비상용 OS들에 경험이 많다. 이렇듯 다재다능한 팀원들이 모여 디비코(주) PVR SW팀은 최강의 팀워크는 물론 최강 기술력을 자랑한다.

### 편안한 의사소통 속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공유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디비코(주) PVR SW팀의 팀원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팀원들은 매월 팀 회식과 분기별 워크숍을 통해 개발 과정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한다.

그리곤 다시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팀워크를 향상해 나간다. 매주 열리는 자체 팀 주간 업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작게는 개개인이 직면한 특정 기술문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답을 찾아내고, 넓게는 새로운 기술과 업계 동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 밖에 어떤 회의라도 팀원 누구나 주관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듯 수평적이고 편안한 팀 분위기 속에서 팀원들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 창의성과 탐구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한다

디비코(주) PVR SW팀은 TViX M2x00/M3x00/4x00/51x0/65x0의 전통을 계승해 현재 양산중인 TViX M22x0/33x0, TViX M66x0/6610/6620, TViX N1/1100/Cafe, TViX S1/S1-Duo 등으로 대표되는 티빅스 전 제품의 라인업을 개발해왔다. 디비코(주)의 총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이 제품들이 모두 디비코(주) PVR SW팀의 팀원들 손을 거쳐서 탄생된 것이다.

“계속 열심히 해야죠. 저희 개발팀은 사용자들의 요구와 열망을 한데 모아,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기술은 진보할수록 점점 복잡하게 뒤엉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근본은 똑같다는 것이 팀원들의 설명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욱 편리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기술이 비롯된다고. 그러한 질문의 첫 번째 열쇠를 쥔 이들이 바로 S/W 개발자들, 또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들이다.

이들은 남모르게 밤잠 설치며, 더 큰 기술을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에서 기술로 실현하는 진정한 Dreamer들이다.

글 정창욱 · 사진 조인기

디비코(주)의 총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이 제품들이 모두 디비코(주) PVR SW팀의 팀원들 손을 거쳐서 탄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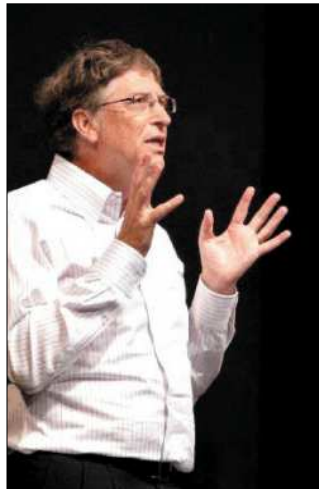


Never ending challenge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인재와  
타이밍에  
주력했던  
정통 CEO  
빌 게이츠



가장 많은 돈을 벌다가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이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어떻게 사는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얘기다. 빌 게이츠는 올해 미국 경영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미국의 400대 부자' 리스트에서 또 1등을 차지해 무려 17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통한다. 그의 재산은 540억달러로 약 62조원에 달한다.

아이폰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로 유명하다면,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체제(OS)나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평생을 바쳤다. 윈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1975년 19세의 하버드대 학생이던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선보인 첫 제품은 PC 즉 개인용 컴퓨터인 하드웨어였다. 1년 후 스티브 잡스도 새로운 운영체제를 지닌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빌 게이츠가 한발 빨랐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판단했다. 회사 이름도 마이크로와 소프트웨어의 합작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 기준으로 매출이 617억 달러, 순이익이 177억 달러다. 윈도우로 해마다 벌어들이는 고정 수익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의 경영 방식은 교과서적이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사야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항상 새로운 윈도우 OS 발표를 할 때면 어려가 나면서 '블루스크린'이 뜨는 게 일반적일 만큼 빌 게이츠의 프로그램은 완벽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지 않는다.

일단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냈다. 이 제품을 구입한 후에 기술적 진보를 거쳐 며칠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게 그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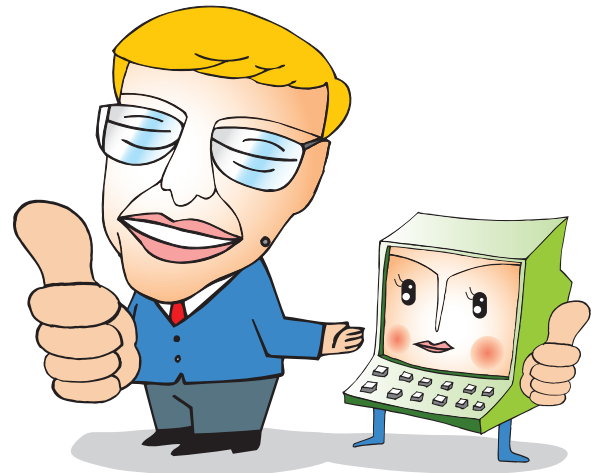
사람들이 사고싶은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다. **꼭 필요한 그래서 반드시 사야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이념이다.** 그는 완벽주의자는 아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타이밍을 읽고 다른 기업들과 제휴와 동맹을 맺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맨이었다.

2008년 6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부인 멜린다와 세 자녀를 끌고 나타났다. 임직원들 앞에서 호명을 받은 그는 단상으로 나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는 "우리는 몇번이고 실수를 했지만 그보다는 커다란 변화 앞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예측은 몇번이고 틀려왔지만, 내가 없음으로 인해 뛰어난 인재가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33년 간 이끌어오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났다. 그는 이제 대주주로서 또 창업자로서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그가 마지막 자리에서도 밝혔듯 빌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최고의 인재를 모아 적기에 투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빌 게이츠의 경영철학인 '타이밍'이다. 그럼 이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은퇴와 제2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빌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최고의 인재를 모아 적기에 투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빌 게이츠의 경영철학인 '타이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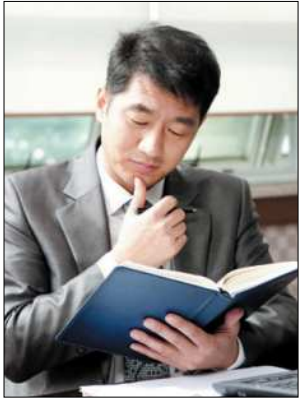


바로 기부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기부다. 전 재산의 절반을 이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가난한 사람, 교육이 필요한 사람, 약이 필요한 아픈 사람을 위해 썼다. 그는 31세에 직원과 사장으로 만나 37세에 결혼한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빌앤멜린다 재단을 만들어 오직 기부에만 재산을 쓰고있다.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했던 CEO였던 빌 게이츠는 단지 우수한 인재를 모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제2의 직업으로 가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일어인 빌 게이츠의 도움으로 가난과 병마를 이기고 훗날 우수한 인재가 될 전 세계 잠재적 수재가 현실의 인재가 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부흥기가 오지 않을까?

Self Innovation Note

(주)아이피에스 개발지원팀  
최형섭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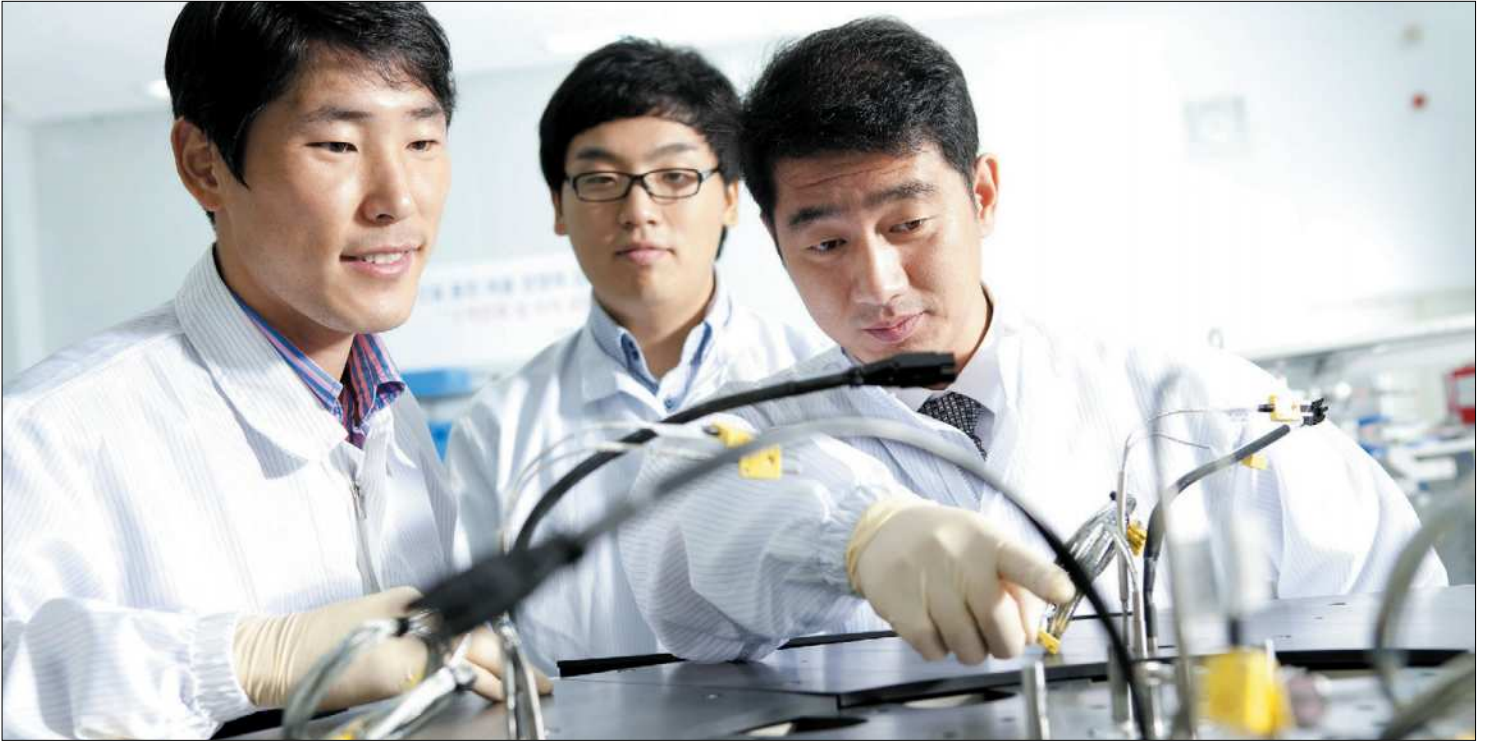
#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

당장 눈앞의 일에만 만족했을 때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다. 멀리 내다보고, 크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꾸준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나날이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가깝게 느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의지를 갖고, 변화를 시작하라.



**변화**는 인간과 조직이 생존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숙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만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모든 것이 쉬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그 우리 사회는 단순히 변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보다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도 변화 나름인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경영환경은 조직은 물론 개인에게도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를 통한 성장은 기본이고, 경쟁상대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어떤 조직은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기대 이하로 실패하는 변화도 부지기수다. 왜 변화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시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 것인가?



성공은 마음먹기 달렸다,  
기본에 충실하자.

첫째, 기본에 충실하자. 어떠한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때로는 지나친 변화만을 강조하여 기본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다. 변화도 좋지만 기본을 망각한다면, 어렵고 힘들게 추진하는 혁신활동들이 사상누각이 되어 일순간 허물어질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의 혁신활동 구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가지가 바로 “Back to the basic”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 혁신 등의 구호만 외치며 앞으로 달려 가다보니 기본을 소홀히 하게 돼 그 동안의 활동들이 오히려 물거품이 된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변화는 어느 날 특별히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생활 속의 노력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변화를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만족스런 성과도 나올 수 있다.

프로는 결과물로 승부한다,  
성과를 내자.

둘째,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우선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다. 농담 삼아 “‘열심히’는 ‘한심’이 가 열 개 모인 것이 ‘열심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보자”라고 말한다. 물론 열심히 해야만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경영자들이 ‘일은

변화는  
어느 날 특별히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생활 속의 노력이다

스칼라량이 아닌 벡터량으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요구 사항인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일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혹자는 너무 성과위주의 결과론적 사고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성과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elf Innovation Note

(주)아이피에스 개발지원팀  
최형섭 부장

사람이 재산이다,  
마음을 움직여라.

셋째, 일은 사람이 한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자신의 마음 하나도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람이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고 싶고, 일에 대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면 먼저 같이 일하는 동료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열린 커뮤니케이션은 회사나 조직에 있어서도 활력을 주는 좋은 순환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막상 어떻게 해야 동료나 후배들, 혹은 상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지는 막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 내가 먼저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이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며, 인정해 주자. 서로 함께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 주자.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진실과 진정을 가지고 대해야 서서히 나에게 다가올 것임을 잊지 말고.

직장 내에서 그렇듯 사람들과 서로 진심을 담아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일은 어느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며 인정해 주자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 Passion

SECTION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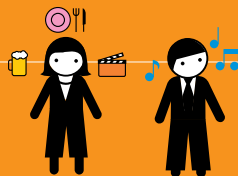


**38**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골프동호회 <출인원>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희망의 '출인원'



**40** Positive Energy  
(주)아트 경영지원팀 김혁 사원  
사진샷 빠진 후 인생이 풍요로워 졌어요

**42** Talk Box  
원익인의 회식 문화  
달라지고 있는 회식 문화



**48**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위닉스 한울사랑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따뜻한 마음 전해요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골프동호회  
〈홀인원〉



##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희망의 ‘홀인원’

# Hole in ne

홀인원(Hole in One),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해 보고 싶은 행운의 샷이다. 하지만 실력 없이 운만으로 홀인원을 이루기란 어렵다. (주)원익머트리얼즈 골프동호회 〈홀인원〉 회원들이 개인 기량 연마에 힘쓰는 이유도 그 때문. 각자 실력을 갖춘 다음, 모두 함께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자신도 승리하고, 팀도 승리한다는 걸 아는지담이다.



지난 9월 15일 저녁, 업무가 끝나자마자 (주)원익머트리얼즈 골프동호회 〈홀인원〉 회원들은 회사에서 가까운 스크린 골프장에 모두 모였다. 이준열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도 여러 명 참석했다. 〈제2회 홀인원배 스크린 골프대회〉가 열린 것. 이날 경기는 4명씩 모두 5개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직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선수들은 라운드에 입장한 선수에게 격려를 보냈다. “오~ 자세 좋은데~”, “폼은 프로야, 프로!”, “시원하게 한 방 날리라고!” 또 경기가 펼쳐지기 무섭게 이쪽저쪽에서 박수소리가 넘쳐났다. ‘나이스 샷!’,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버디!’... 병커샷이나 헤저드가 나오면 “아이쿠~오~”하고 모두들 아쉬운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개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서로 자기편처럼 칭

## 스트레스도 풀고, 우정도 쌓고!



찬하고, 위해주는 모습이 동호회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대회장은 어느새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골프 하나로 화기애애해졌다. “하하하. 운동이란 게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해서 즐거운 거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더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우정도 쌓고!” <홀인원>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봉수 부장의 말이다. 지난 2008년 12월 “우리 회사의 문화는 우리가 만든다”는 팀장들의 의지로 결성된 동호회인 만큼 끈끈한 동료애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미 세계 정상급이다.

## 홀인원은 ‘실력과 행운의 산물’, 개인 실력 향상해 팀을 승리로!

서봉수 부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홀인원>은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모여 골프를 즐긴다. 또 즐겨 찾는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끊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실력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골프를 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20-30대 젊은 골프들도 증가 추세다. “골프는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멋있고 행복과 희열을 맞출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이 <홀인원> 회원들의 평이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광중 부장은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아마추어나 프로 입문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웃는다. 다른 회원들은 김 부장처럼 “뒤늦게 재능을 발견했다”며 우스개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회사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다들 입을 모은다.

“홀인원요? 아, 한 번 해 보고 싶죠~”

동호회 이름처럼 회원들 모두 홀인원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홀인원은 단순히 운이 좋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회원들은 말한다. 홀인원도 실력이라는 것.

“행운과 실력이 맞아떨어져야 홀인원이 나와요. 우리 동호회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게

을리 하지 않아요. 이미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도 실력이 녹슬지 않게 하려고 연습에 매진하지요. 회원들은 잘 하시 분에게 지도나 조언을 받으면서 열심히 골프를 하고 있어요.”

## 프로급 열정으로 회사 생활도 즐겁게!

“연습과 성적은 비례한다!” 선배들의 이 같은 조언을 들을 때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회원들. ‘무엇이든 지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는 세상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고. 회원들이 실력향상에 매진하게 되

는 또 다른 이유는 동호회 활동이 곧 회사생활에 활기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동호회 내에서도 각자 개인 실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듯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로, 각자 맡은 업무에 프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 실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적인 만족 차원을 넘어 팀플레이를 할 때는 팀의 승리를 가져온다. 회사 내에서 구원원 개개인의 능력이 곧 회사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프로급 열정으로 푹푹 뭉친 <홀인원>동호회의 회원들을 위해 동호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 후 운동 시에는 개인 운동 장비를 챙겨오는 것이 좋다.

한편 18홀까지 진행된 이날 골프대회 결과 홍성선 선임이 메달리스트로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박상우 과장이 우수, 김광중 부장이 준우수, 이인복 과장이 롱기스트, 이동준 부장이 니어리스트로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앞으로 <홀인원>동호회는 분기별로 이 같은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기운을 북돋울 계획이다. 또 매년 시원하게 펼쳐진 골프장 잔디밭에서 ‘실전 필드 골프대회’를 개최해 회원 간 친목도 ‘홀인원’으로, 실력도 ‘홀인원’으로 시원시원하게 키워나갈 계획이다.



(주)아토 경영지원팀  
김혁 사원



요즘엔 사진 찍기가 취미인 사람들이 많다. 디지털 카메라 열풍으로 누구나 손쉽게 카메라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똑딱이'로 불리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고, 사진작가와 마니아의 전유물이던 DSLR 카메라를 이용하는 계층도 넓어졌다. (주)아토 경영지원팀 김혁 사원은 '추억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사진 찍기를 시작, 지금은 사진에 푹 빠져있다.

# 사진愛 빠진 후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 등산, 여행의 추억

## 남기고 싶어

## 사진 시작

김혁 사원이 취미로 '사진 찍기'를 시작한 지는 2달. 워낙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다보니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산에 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냥 내려오는 게 아쉽더라고요. 힘들게 정상에 올랐는데, 인증샷 한 장 정도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하." 그래서 카메라부터 샀다. 현재 김 사원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캐논 550D. 처음엔 사용설명서를 열심히 읽었고, 그 다음엔 DSLR 촬영 기술이 담긴 책을 따로 사서 열심히 독학했다. 지금도 인터넷이나 관련도서를 통해 열심히 사진 공부 중이다. 아직 '왕초보'라 많이 찍어보는 게 제일 큰 사진 공부라고 한다.

"찍어놓고 보면 노출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 셔터 스피드는 몇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구도가 더 좋은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배워나가고 있어요. 사진은 정말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은 후 등산갈 때는 꼭 등산배낭과 함께 카메라 가방도 메고 간다. 산에 오르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수시로 찍고, 정상에선 '인증샷'도 필히 찍는다. 또 함께 등산한 동료들 사진도 찍어 주면서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으로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사진 촬영이 취미가 되고부터 김 사원은 주변인들에게 인기도 부쩍 많아졌다.

“친구들이 그전보다 더 많이 저를 찾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 한 번 놀러가자고 성화에요. 갔다 와서 사진파일을 보내주면 고마워들 하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고요.” 김 사원은 등산, 여행 다니며 찍는 풍경사진도 사진이지만, 요즘은 인물사진 촬영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다. 가족들 사진은 이미 한 장씩 다 찍어줬고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시시때때로 직장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주며 직장에 웃음꽃을 선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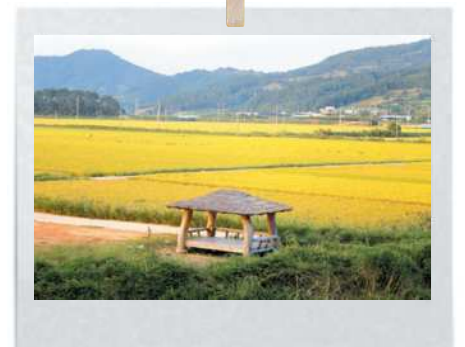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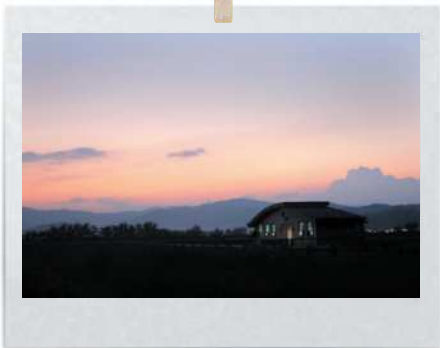
“앞으로 촬영기술이 더 많이 늘면, 우리 회사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 사진을 찍고 싶어요. 특히 사내 봉사회 활동에 참여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우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고 싶어요. 취미가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 장수사진도 찍어드리고 싶구요.”

입사 6개월차. 다니고 싶은 회사에 취직해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막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자극이 필요함을 느꼈던 그에게 사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자극이 되고 있다.

“취미생활 하나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는 김 사원. 자신처럼 사진 찍기를 취미로 하고 싶은 사우들이 있다면, “일단 질러라”고 조언한다. 카메라부터 사고 보자는 말이다. “여러분도 한 번 도전해 보세요. 그거 지나치던 일상이 소소한 행복으로 변할 겁니다.”

김 사원은 곧 동호회에도 가입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실력을 쌓아갈 계획이다. 또 ‘나름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많이 쌓이면,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 공개하고 싶단다. 맛보기로 그동안 김 사원이 찍은 ‘나름 작품’ 사진을 몇 점 공개한다. 즐겁게 감상하시길.

글 정창욱 · 사진 방문수



# 달라지고 있는 회식 문화

직장인들의 회식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음주가무 일색에서 벗어나 맛있는 요리를 찾거나 문화공연이나 놀이문화를 즐기는 등 다채롭고 활동적인 회식문화를 선호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 직장인 414명을 대상으로 '직장 회식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문화 유형은 맛있는 요리집을 찾아다니는 '미식가형'이 43.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뒤이어 음주가무형 18.0%, 놀이공원/스케이트장/야구장/족구/볼링을 즐기는 놀이문화형 13.0%, 콘서트/뮤지컬/연극/영화 등 예술공연을 즐기는 문화공연형 10.9%, 스키장/수상스키/낚시/등산 등을 즐기는 레저스포츠형 9.4%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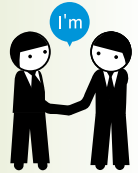
● 미식가형 43.5% ● 음주가무형 18.0% ● 놀이문화형 13.0% ● 문화공연형 10.9% ● 레저스포츠형 9.4%

Q

원익 임직원들이 선호하는 회식문화 유형은 어떤 유형 입니까?  
바라는 회식문화나 좋았던 회식문화를 말씀해 주세요.

(주)원익 메디칼2사업부

서우현 사원



저는 입사한지 2주밖에 안된 신입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새내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있어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주)원익에 들어오기 전 너무 좋았던 회식 문화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입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는 출근 일주일 전에 환영파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5시까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장님과의 인사 및 간단한 면접을 마치고 함께 일하게 될 직원들과 회식자리로 이동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얼굴을 익혔습니다. 처음 있는 자리인데도 어색하지 않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계열사의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출근하기도 전에 미리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저에 대한 상사님의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회식자리는 더욱 익숙할 수 있었고

함께 들어온 동기가 없어 힘들 수도 있었던 회사 생활을 편안하게 적응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회식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팀 상무님께 감사드리고, 다음날 안부전화로 챙겨주신 고양희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 회식문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직원의 수가 매우 적지만 우리들을 위한 맛집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나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술자리에 가서 남자 분들의 야구 등 스포츠 이야기 위주의 공통되지 않은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회식자리만큼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부장님이나 상무님 중에 여성이 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상상도 해보게 돼요. 앞으로의 회식장소를 근처에 분위기 좋은 와인바(Bar)로 기대해 봅니다.

(주)원익 인사기획팀

**최진숙 과장**



제가 바라는 회식 문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왕이면 맛있는 요리로... ^^ (저는 미식가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2) 2차는 자유롭게,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개인 사정이 있어 일찍 가야되거나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녁 식사 후 2차까지 강요하는 분위기 조성은 회식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는 역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가끔은 색다른 분위기의 회식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함께 식사 및 가벼운 음주로 즐거운 직장 문화 및 팀워크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가끔은 팀 분위기 전환 및 회식 후 팀원간 이야기 끼리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색다른 분위기의 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식사 후 공연 및 영화 관람·가족 초청 회식 등등. 예전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평범한 회식 대신에 뮤지컬, 오페라, 서커스 공연 등을 단체로 관람하고, 저녁식사와 맥주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회식 후면 한동안 팀원들끼리 같이 봤던 뮤지컬 등의 공연 얘기로 화제에애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은근 높일 수 있고요...^^  
 기억에 남은 회식은?

서커스 공연을 본 후 팀원들과 와인바에서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졌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뮤지컬이나 영화는 개인적으로도 가끔 보러가지만, 서커스 공연은 대부분 처음이라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뒤풀이로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와인 맛을 음미하며 함께 봤던 공연얘기를 나눴던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원익퀵츠 세라믹사업부 기술연구소 세라믹 개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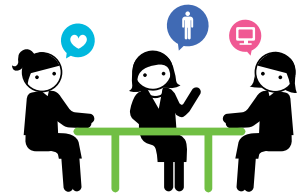
**김미영 사원**



입사 후 4년보다 최근 1~2년간 회사 여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게 되면 의례적인 인사만 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성격, 서로의 고민, 또 서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사원 회식’ 덕분입니다. 여직원들의 회식은 남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동성이라는 편안함

과 공감대로 인해 사무적인 만남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과 생각을 가식이나 내숭 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같은 독주를 마시기보다는 맛있고 건강한 식사와 간단한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며, 서로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로 시작해 최근 근황, 여직원으로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 TV 드라마나 연예인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눕니다.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들은 원래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안도감, 소속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6년 전 회사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사 사람들과는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마음 문을 닫고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회사생활이 굉장히 외로웠고 전생태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으며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는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여직원들과 간혹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느낀 외로움이나 힘들음은 나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느끼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힘들음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할 때도 마음에 지원자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헤맬 수밖에 없었던 머릿속의 미로도 여러 색깔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며

원익사의  
회식 문화

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으며 그 사람을 애뜻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한층 더 가깝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떠나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같이 성숙하고 같이 늙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도 보여주고 싶고, 상대방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도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시간과 열정의 대부분을 직장에 투자하는 만큼 직장 인간관계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 여사원 회식은 직장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저의 아지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쾌하고 따뜻한 여사원 회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주)원익쿼츠 구매팀  
권용미 사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회식자리가 잊혀지지 않는군요. 부어라~ 다들 마셔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신없이 술 드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이제 더 이상 술을 권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는 대신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 가 식사하면서 간단히 맥주 한잔씩 하고, 직장 상사간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식문화가 바뀌고 있다하더라도 모임에 술이 빠질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요즘 회식장소로 많은 회사들이 식사와 간단한 맥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식사 후 문화생활을 하는 회사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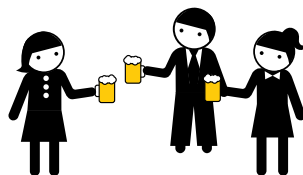
“음주형 회식” 대신 불링이나 영화관람 같은 “문화형 회식”을 즐기면 스트레스도 날리고 회식이 끝난 후 직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음날 음주 피로가 없으니 업무능률도 극대화 될 듯합니다. 직장 내 회식문화의 새로운 바람이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인사총무팀  
박창일 과장



요즘 들어 웰빙이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회식도 간단한 실내 스포츠를 즐긴 후 마시는 한 잔의 맥주나 문화생활을 즐긴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말 그대로 맛집을 찾는 자리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영화를 보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 회식을 꼽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바쁜 일상 이니 만큼 조금 이른 시간에 영화를 관람하고 가볍게 한잔 하고 헤어지는 회식은 어떨까요. 여유가 묻어나는 회식 문화를 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신원종합개발(주) 공사팀  
심규정 사원



월요일 아침부터 긴장하며 한 주를 시작해 고된 하루하루를 넘겨 금요일 퇴근까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황폐함이 극에 달할 때 그렇게 다시 주말은 찾아오지요. 무작정 폭음하는 힘겨운 회식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지친 우리들을 위해 ‘기력회복회식’을 갖는 건 어떨까요? 몸에 좋은 보양식이나 분위기도 맛도 좋은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 잠시 힘든 업무는 접어두고 서로서로 좋은 얘기들 나누면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는, 다음날이 더 활기차지고, 열심히 일할 마음이 솟는 그런 회식! 꼭 참석하고 싶어요.^^

(주)아이피에스 인사총무팀  
문인준 사원



제가 생각하는 최근 회식 트렌드는 ‘뻔’한 회식이 아닌 ‘fun’한 회식!

2010년 7월 1일 입사한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들 중에 가장 큰 화제거리가 바로 ‘회사생활’입니다. 친구들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게 질문을 퍼붓곤 하죠. 한 친구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에 주위는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왈, “야! 너네 회사는 회식 자주하냐? 술 완전 많이 먹지?”

인준 왈, “야! 지금이 어떤 시대엔 회식 때 술에 절고 그러냐? 첫 회식 때 잔디밭에서 와인 한잔하

고, 영화 한편 봤다”

그게 무슨 회식이냐며 편잔을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부러운 기색을 내 비추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저의 어깨에는 이미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회식 때 잔디밭에서 와인 먹고 영화 보는 회사(주) 아이피에스! 이것이야말로 요즘 트렌드인 ‘뽀’한 회식이 아닌 ‘fun’한 회식이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고 짧은 일화지만 그 안에서 달라지고 있는 회식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에게 회식이란 고기에 소주 한 잔 마시며 왁자지껄 대화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식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바쁜 업무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레저와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회식 활동을 통해, 우리는 ‘술만이 소통의 다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회식 문화의 키포인트는 ‘무엇을 먹을 까? 마실까?’가 아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fun’하게 소통의 다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뽀’한 회식이 아닌 ‘fun’한 회식이 우리 원익 식구들을 웃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아이피에스 기획팀

### 이진만 과장



평상시 영화와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선호하는 회식은 영화, 뮤지컬, 연극 등을 관람하는 회식입니다. 현재 1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회식을 했던 기억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아이피에스에 입사한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벌써 4개월?) 지금까지 회식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회식은 입사 후 처음 가졌던 경영지원본부 회식이었던 같습니다. 먹고 죽자는 식의 회식이 아닌 스파게티와 와인으로 시작해 마지막은 영화 관람으로 마무리했던 제가 평소 바라던 회식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극장을 갈 수 없어 아쉬웠는데 그런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를 어색해하고 영화가 늦게 끝나긴 했지만 기존의 회식과는 달리 업무에 지친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아이피에스의 회식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아토 사업지원팀

### 송태정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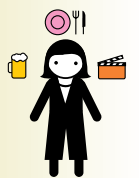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말로만 듣던 유명 공연을 처음으로 관람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연인도, 가족도 아닌 직장 선배님들. 이날은 다름 아닌 저희 사업지원팀 회식 날이었습니다. 회식으로 뮤지컬 관람이라니. 회식하면 떠오르는 막연한 장면만을 연상했던 저로서는 회식으로 뮤지컬을 관람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회사의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새내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회식은 모두 함께 즐기는 것이다”라는 저희 부장님의 남다른 회식 철학으로 먹고 마시는 물질적 양식이 아닌 모두가 흥미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양식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간 서울 충무아트홀, 그 명성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왔었습니다. 열정적 공연과 흥미로운 스토리, 왜 이 공연이 세계 4대 뮤지컬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명품 공연이었습니다. 평소 영화 외에는 딱히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 아닌 저에게 이런 유명 공연 관람은 좋은 기회였을 뿐 아니라 행운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의 순환 속을 벗어나 문화 공연을 즐기는 느낌은 마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조직문화가 과거 속에 정체된다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 팀장님은 이를 알고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회식(會食)이 아니라 팀 구성원 모두가 즐기며 번성할 수 있는 회식(會殖)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 오윤영 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술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아하다보니 쉽게 선택이 안 되네요. ^^ 그래서 저의 선택은 복합형입니다. 한 달은 술 먹고 즐기고, 한 달은 맛있는 것(한식·퓨전 등등)먹고, 한 달은 영화나 공연보고 맥주한잔~ㅋㅋ 보통 회식이 한 달에 한번이니까 일 년이면 4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다 같이 풋살하고 먹었던 맥주맛이 엄청 좋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 외에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는데 더군다나 땀 흘리며 뒤엣기고 승부욕을 불태우고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Talk Box

원익사의  
회식 문화

많이 납니다. 가끔은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개그 콘서트(지방공연 ㅠㅠ)같은 거 보면 그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여건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노래방은 이제 그만~ㅋ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기술팀  
**박채모 대리**




보통 우리들이 회식이란 말을 들었을 때 뇌리에 가장 빨리 전달되는 단어 바로 술입니다. 술은 팀을 단합되게 하고 소심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약인 동시에 건강과 다음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이기도 하지요. 술은 사람에게 따라 봐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회식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생산기술팀은 회식 음주 문화를 지양하고자 다른 방식의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물론 음주가 아예 빠지는 것은 아니죠. 정도를 지키며 다른 방식으로 팀이 단합될 수 있도록 운동을 같이하는 겁니다.

현재 볼링대회, 당구대회, 스크린 골프대회 등 여러 가지 운동으로 회식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회식이라는 단어에조차 민감함을 느꼈던 술에 약한 동료들마저 회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긍정 마인드로 변하게 했죠. 여러 방면으로 플러스 작용이 되어 좋은 회식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송민희 사원**



두 가지 저희팀의 특별한 회식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식사 후 팀원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하는 조금은 특별한 회식을 시도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감대 형성과 함께 팀워크가 좋아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ㅎㅎ

팀끼리 함께 공연을 보고, 동료들과 신나게 웃고 즐기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서로간의 벽도 허물어지고 결속력이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지방에 있어 공연의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지만 영화 한 편으로도 그 효과는 충분합니다.^^ 뮤지컬, 연극, 영화 등 공연관람으로 문화생활을 함께 하는 회식을 강력 추천합니다.

또 하나, 지난 몇 달간 저희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회식을 했습니다. 일명 "미식가형 회식?"이라고 할까요. 한 달에 팀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맛집을 추천해서 그 맛집을 찾아다니며 회식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던 또 한 번의 특별한 회식이었습니다. ^^\* 몇 달 만에 조용히 종료되긴 했지만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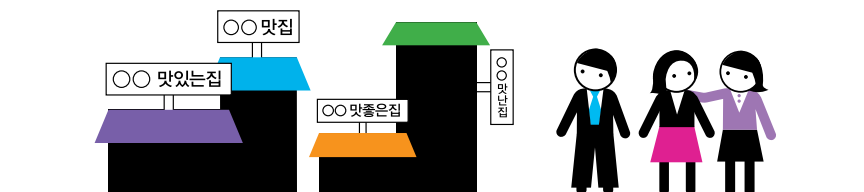
회식은 직장인들에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함은 물론 앞으로 술만 마시는 회식보다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팀원 간의 단합을 다지고,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만드는 건강하고 즐거운 회식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김용희 대리**



원익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의 회식유형은 '음주가무형'이 아닐까요? 최근에는 음주보다는 '미식가형'이나 '놀이문화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 아직까지는 '음주가무형'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습한 바람과 뜨거운 햇살이 가득했지만 몇 달 전 친구와 같이 반포지구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잔디밭에서 정장차림의 남녀가 맥주를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김대리, 최과장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회식을 하는 것 같았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시원한 강바람 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회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그리고 제가 두산의 광팬인데...가끔 잠실에



서 회식의 날 같은 것이 있어서 야구도 보면서 회식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팀원들이 많다면 야구장에서 서의 회식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위닉스 지원팀  
**홍주선 사원**



분기별로 다양한 테마가 있는 회식을 제안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 회식문화도 예전과 달라졌다 합니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막가파식 술자리,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피곤한 술문화에서 이제는 다채로운 예술문화 체험이라든지 스포츠관광 등 회식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회식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무언가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회식입니다. 1분기에는 영화감상 및 강남 맛집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상영 중인 영화 중 인기순, 평점순으로 영화와 영화관을 선택하고, 관람 후 사전 예약한 강남의 유명한 맛집으로 이동, 그 자리에서 맛 나는 식사도 하면서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논하는 것입니다. 2분기에는 경기 일대에서 서바이벌게임, 레프팅 등 레저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게임을 통해 사원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3분기에는 당구나 볼링 라이벌 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승자에 대한 상금도 지급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꼭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언가 테마를 정한 후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통해 사원들에게 멋진 추억거리와 단합,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회식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닉스 지원팀  
**이태울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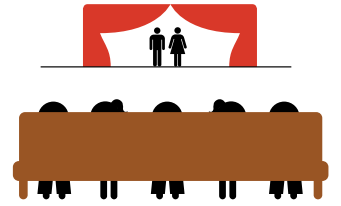
당일날 알려주는 회식은 NO! NO! NO! 회식당일이나 아니면 바로 하루 전날에 알려주는 일명 번개 회식은 이제 그만!!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 있을 때 이런 번개회식모임은 정말이지 너무 난감합니다.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인데 회식에 빠지자니 그렇고... 직원들에게도 여러모로 눈치가 보일뿐더러 다음날이면 웬지 나만 소외된 느낌도 들고 약속을 취소시키고 회식에 참석하면 괜히 즐거워야할 회식자리인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는 계획된 회식이야말로 불평불만 없는 진정으로 즐겁게 회식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식 일주일전에는 미리 공지를 통해 일시를 조정하고 3-4일전에는 확정된 회식 일자를 통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회식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해 주세요.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기획관리팀  
**김영옥 사원**



작년에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오페라를 관람한 문화공연형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공연을 좋은 동료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회식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음주가 무만 일삼는 회식보다는 다양한 회식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공연형 회식은 해보았으니, 미식가형 회식이나, 혹은... 올 겨울에 레저스포츠형 회식으로 스키장에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식은 항상 원추입니다!! 하하!!

원익투자파트너스(주) 벤처투자팀  
**최성일 팀장**



음주가무로 회포를 푸는 것도 좋지요. 오고가는 술잔과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음날 머리가 찌근거리고 속도 울렁울렁... 몸이 힘들어지지요.

가끔씩 야구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회식문화로 어떨까요? 탁 트여진 야구장을 바라보면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흠뻑 공과 같이 날려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야구응원의 필수 준비물, 막대 풍선도 있지만 맥주와 치킨도 빠트릴 수 없지요. 주자 1, 3루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을 숨죽이며 바라보면서 맥주 한 모금을 넘길 때 터지는 시원한 안타, 기가 막힌 안주감이지요. 열심히 응원하다보면 너도나도 한마음 함께 있는 모두가 우리 편이죠. 경기 안 풀릴 때면 가끔씩 치어리더의 응원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요. 열심히 응원하다보면 술도 깨고 소화도 되고, 경기 끝나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야구장의 찬바람, 따뜻한 국물에 소주잔으로 뒤풀이, 동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다보면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도  
따뜻한 마음 전해요



‘기울장마’로 불리는 집중호우가 수도권에 쏟아진 지난 9월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 4동에 위치한 새빛맹인선교회는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떠들썩했다. (주)위닉스의 사회봉사단인 한울사랑회 회원 9명이 봉사활동을 위해 선교회를 찾은 것. 이날 한울사랑회는 선교회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책 인쇄, 사무실 청소, 시각장애인 도우미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안대와 지팡이, 시각장애체험으로  
시각장애인의 마음부터 이해

이날 한울사랑회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조금 이색적이었다. 봉사활동에 돌입하기 전 먼저 시각장애체험부터 한 것이다. 선교회 관계자로부터 흰 지팡이



의 종류 및 사용법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이후 회원들의 눈은 곧장 안대로 가려졌고, 손에는 흰 지팡이가 쥐어졌다. 5층 건물인 선교회를 1층부터 옥상까지, 옥상에서 다시 1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무려 30분의 시간이 걸렸다.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의 표정은 너도나도 진지했고, 내딛는 걸음걸음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이날 처음 시각장애체험을 해 본 정미란 사원은 “계단을 내려갈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공포 그 자체였다”면서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들도 “보지 않고 생활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렸다.

점자책 인쇄, 사무실 청소,  
시각장애인 도우미 등 역할 특독

한울사랑회 봉사단이 맡은 이날의 봉사활동 특명은 새빛맹인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점자잡지 <점자 새빛> 인쇄, 선교회가 새로 이사 갈 사무실





맘 흘 리 다  
보 면 어 느 새  
서 로 를 이 해  
하 게 되 요.



내부 청소, 수리를 맡긴 휴대폰을 찾으러 A/S점에 가는 시각장애인 도우미 등이었다. 먼저 접자책 인쇄 봉사활동에는 김왕길 수석, 고준성 주임, 신봉철 선임, 이태울 사원, 정미란 사원이 투입됐다. 번호가 매겨진 알루미늄 접자 인쇄판 사이에 약간 두꺼운 A4 용지를 끼운 다음, 수동 접자 인쇄기에 수욱 밀어 넣으면 종이에 글자가 찍혀 나온다. 어느새 5명의 회원들의 눈부신 협업이 이뤄졌다. 한 사람이 인쇄판 사이에 종이를 끼우면, 한 사람은 끼워진 종이를 판 밖으로 나오지 않게 반듯하게 다시 끼운다. 그런 다음 인쇄기앞 사람에게 전하면 종이 끼워진 인쇄판이 비스듬히 인쇄기 속으로 들어가고, 옆 사람은 인쇄된 종이를 판 사이에서 빼내어 차곡차곡 페이지에 맞게 쌓아둔다. 그 옆 사람은 빼낸 인쇄판을 다시 정리해 종이를 끼울 사람 옆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고준성 주임은 누구보다 빠른 손놀림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웃음) 활자로 된 것도 읽기 힘든데 어떻게 손끝으로 글자를 읽는지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선교회가 새로 이사 갈 사무실 청소는 심규민 과장, 우정 주임, 오정학 사원이 맡았다. 사무실

바닥을 쓸고, 닦고, 창문을 통째로 빼 창틀에 먼지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닦았다.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누구 하나 ‘쉬었다 하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이 안병수 과장은 자진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김형일 씨의 도우미로 나섰다. 며칠 전 김형일 씨는 고장 난 휴대폰을 서초역 인근의 A/S센터에 맡겼는데, 이날 수리가 끝나 찾으러 가게 된 것. 서초역까지는 지하철로 가기로 했다. 서초역까지 가려면 이수역에서 7호선을 타고 사당역까지 가 다시 2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는데, 때마침 비까지 와 그야말로 난코스라 따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안 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번 봉사활동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괜찮아요”하며 우산을 받쳐 들고 김씨와 다정하게 길을 나섰다.

“맘흘리다보면 이해심, 결속력 높아져요”

저녁 6시가 넘어 이날 봉사활동이 모두 끝났다. 접자책 인쇄팀은 부지런히 손을 놀려 목표량(10권)을 채웠고, 청소팀도 새 사무실이 환하도록 쓸고 닦기를 완수. 6시 못 돼 안병수 과장과 김형일 씨도 돌아왔다. 안 과장은 “비가 와서 걷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것”에 흐뭇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형일 씨랑 햄버거라도 같이 먹으면서 많은 얘길 할 수 있었을텐데”하고 아쉬워했다. 한울사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규민 과장도 “더해 드려야 되는데...”하면서 같이 아쉬워했다.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었다.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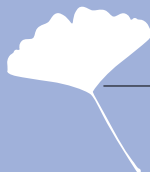
새빛맹인선교회 박 사무엘 복지사는 “창틀까지 빼서 청소하는 분들 처음 봤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늘을 계기로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창단한 (주)아토의 한울사랑회는 매달 꼬박꼬박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데, 이는 전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아토 임직원 모두가 한울사랑회 회원이나 마찬가지로인 셈. 매기 자원봉사활동 일정이 공지되면 참여 직원들은 업무를 미리 해 놓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업무도 프로, 봉사활동도 프로로 하겠다는 것이 참여직원들의 마음이다.

“무엇보다 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한울사랑회의 자랑이죠. 맘흘리다보면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결속도 다져지니까요. 막연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했던 직원들에게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 더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주)아토 한울사랑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다방면에서 활약할 계획이다. “점점 진화하는 봉사회로서 열정적인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이들의 각오가 한울사랑회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글 정창욱 · 사진 조인기



배추 값 파동, 그 속에서...

책임있는 윤리경영과 공명정대한 투명경영을 배운다.

# 배추 값 파동 그리고 책임경영



배추 값 파동이 한동안 신문지상을 달궜다. 김치 없는 한국인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추 값이 크게 올라 포기 당 무려 1만5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알고보면 배추 값은 항상 급락 아니면 급등이었다. 지난해 배추 한 포기는 500원까지 폭락했다. 작황이 좋았고 출하시기가 몰렸기 때문이다. 중국산 납 김치 파동으로 2006년 배추 한 포기는

3000원이란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다.

이번 배추 파동은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큰 원인이었다. 날씨가 나빠 작황이 안 좋았다. 여기에 십여년 이상 된 밭때기라는 특유의 유통구조도 한 몫 했다.

그런데 배추 값은 왜 항상 널뛰기를 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김치 없이 밥을 어떻게 먹는가' 라는 말을 당연히 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탄력성이라고 한다. 탄력성은 어떠한 변수가 변할 때 그 변화율에 따른 수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용어다. 보통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나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배추를 사고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났을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 지를 얘기한다.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약간 변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배추는 전자다. 배추 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먹으면 그만이라지만 엄연히 다른 식품이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쌀값이 반값으로 내린다고 밥을 두 배로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배추 값이 지금과 거꾸로 반 값으로 떨어졌다고 배추 김치를 두 접시씩 일부러 비우지는 않는다.

또한 배추는 대체재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만약 배추를 대체할 만한 거의 유사한 채소가 있었다면 농가에선 배추 대신 다른 대체제를 생산했을 터지만, 가능하지 않았다. 이번 배추 파동은 배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크게 좌우했다. 이처럼 특정 상품의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한다.

배추 값 급등의 원인은 상당 부분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큼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를 그러려니 받아들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바로 배추의 유통 구조다. 배추 농가가 직접 엄청난 규모의 배추를 시

장에서 팔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어느 제품이나 그렇듯 도매와 소매라는 개념이 나왔다. 특히 배추와 같은 농작물은 흔히 발매기라고 얘기하는 선물 거래로 이뤄졌다. 배추 수확 시점보다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미 100평 규모 밭에서 나오게 될 배추를 얼마에 사는 거래다.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지만 이 거래 자체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평소 배추 100 포기가 생산되는 밭인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10 포기만 나왔다면 90 포기 만큼의 손해는 이 발매기를 제안한 선물 투자자인 도매상이 감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도매상이 당연히 투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투자에 대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밭에서는 100 포기가 아닌 10 포기가 나왔지만, 도매상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10 포기의 값을 크게 올려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배추 값이 급등에 급등을 거듭한 것이다.

배추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중간 도매상이라는 이 선물 투자자가 자신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시장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 따른 기업경영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와 공명정대한 경제원리·경영이념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사회적 모범의 기준인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에 대해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틀림없다.

한정연 이코노미스트 기자

혼·창·통 세가지를 알면

조직·개인의 삶·비즈니스에 관한 고민의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魂

創

通

#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모든 조직과 개인이 삶과 비즈니스에 있어 '어떻게 명확하고 원대한 비전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유연하고 기발한 창의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조직 내부를 비롯해, 외부(거래처, 고객 등), 나아가 모든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에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혼·창·통》이다.

### 성공의 원동력,

### 성공의 로드맵-혼(魂), 창(創), 통(通)

혼·창·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혼(魂)은 듣는이의 가슴을 벅치게 하는 비전이며, 창(創)은 늘 '왜?'라고 물으며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롭고 어려운 길을 가는 도전정신이다. 그리고 통(通)은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만남을 제쳐두고 굳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소통하는 것이다.

**고수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혼을 담아 일하는 것이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다. 그래서 핵심 인재일수록 기업 이념과 핵심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 화이자의 제프 킨들러 회장은 이런 말을 한다. "기업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직원들 사이에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는 강한 모멘텀이 생긴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에서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몰입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성공하기 위해 먼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목적에 반드시 혼(철학)이 깃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창은 혼을 노력과 근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한다.** 혼이 씨앗을 뿌렸다면 창은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가꿔서 수확하는 일이다. 그러나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웃라이어에서 말한 1만 시간 법칙이 창에 정확히 적용된다. 2009년 초 기체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기적적으로 착륙시켜 155명의 승객을 구한 일이 있었다. 비행기 기장인 체슬리 설렌버거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1만 9000시간의 비행경험"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통은 큰 뜻을 공유하는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다. 통을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한다. 결국 성공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호리바 제작소는 통의 좋은 본보기다. 면접 때도 "귀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 직원을 위한 생일파티 때도 일반 사원이 최고경영진과 직접 만나 얘기할 기회를 주고 있다.

수많은 대가들이 연구와 통찰, 현장에서의 치열한 실행을 거쳐 얻어낸 성공비결(혼·창·통)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순간의 역사, 역사의 순간을 담은 사진 한장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 플 리 처 상 사 진 전

순간의 역사+역사의 순간, 가장 위대한 사진가들의 이야기  
그들의 뷰파인더에 역사의 밑그림이 그려지던 순간들

플리처상 수상작을 모은 사진전이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10월 1일 개막해 오는 12월 5일까지 대구시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는 **‘순간의 역사, 역사의 순간-플리처상 사진전’**이 그것.

이 전시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먼저 개막해 두 달여 동안 20여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었다. 이번 전시회에도 개막초기부터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플리처상 사진전이 이같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대작들이 많기 때문이다. 플리처상 수상 사진이 ‘지구촌의 역사교과서’로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 1942년부터 2010년까지

### 플리처상 수상작 145점 전시

국립대구박물관·대구MBC·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942년부터 2010년까지 플리처상을 수상한 보도사진 145점이 전시되고 있다. 플리처상의 연도별 수상작들은 야구왕 베이브 루스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는 역사적 인물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베를린장벽과 소련의 붕괴, 뉴욕 9.11테러, 아이티재해 등 세계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고 있다. 전시 사진 옆에는 촬영 당시 상황과 역사적 배경, 사진을 찍은 기자의 소감 등이 상세하게 적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출품작 중에는 눈에 익은 사진도 많다. 대

표적인 것은 ‘전쟁의 테러’다. 네이팜탄(3000도의 화염을 내는 폭탄) 공격으로 화상을 입은 별거벗은 소녀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도망치는 장면이다. 1972년 AP통신 사진기자였던 닉 우트는 이 사진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세계에 고발했으며 이듬해 플리처상을 받았다. 사진 속의 주인공인 김 폭(당시 9세)은 캐나다로 망명했다. 이후 반전활동을 해왔으며 1997년 UN 평화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미국 시카고와 캐나다 토론토에 재단을 만들어 전쟁 피해 어린이를 돕고 있다.

**베트남 사형집행**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의 한 장군이 거리에서 베트남 포로의 머리를 권총으로 쏘는 섬뜩한 장면이다. 이 작품은 많은 미국인을 반전주의자로 만들었다. 프리랜서 사진가인 스티브 루들럼의 **세계무역센터 공격**도 잘 알려진 작품이다.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세계무역센터 건물 모습이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 사진은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루들럼은 2002년 플리처상을 수상했다.

한편 플리처상은 ‘신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언론인 조지프 플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1917년 만들어졌다. 언론·문학·음악 등 3개 분야에 걸쳐 시상하며 90여년에 걸쳐 명성을 쌓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보도사진 부문은 1942년 시상을 시작해 1968년에는 특종 사진과 특집 사진으로 시상 분야가 나누어졌다.



전시기간 2010.10.1~12.5(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국립 대구 박물관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관람료 성인 1만원, 중·고생 8천원, 초등생·유아 6천원  
문의 1588-7890/티켓링크 070-4191-8483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운동부족.

건강한 몸을 위한 10분 스트레칭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 피로가 풀리는 10분 스트레칭

**10분 스트레칭의 효과는 웬만한 운동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칭 하나로 쌓인 피로를 풀어보자.**

오랜 시간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보면 온몸이 나른해지거나 빠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럴 때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은 현대인에게 가장 쉽고, 또 필수적인 운동이다.

## 조급하지 않게,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풀어나가

스트레칭은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요한 점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이 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육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탄력을 이용하거나 갑자기 하면 좋지 않다. 힘을 세게 가할수록 근육이 이완되고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

는 생각은 착각이며 오히려 근육에 통증만 준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우선 무릎과 다리근육이 체중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틈틈이 팔을 높이 들고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준비 스트레칭은 체온을 높여 몸을 평상시의 안정 상태에서 운동하기 적합한 흥분상태로 서서히 유도하기 위한 운동으로,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하기 전의 워밍업 스트레칭이다.

그런 다음 발목, 손목, 무릎, 어깨, 목 등 관절부위를 심장에서부터 먼 부위부터 풀어주면 된다. 과격하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관절반경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뭉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어야 한다.

잠을 잤는데도 찌뿌듯하거나 개운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피로가 계속되면 스트레칭을 해보자. 빼놓아진 몸을 바로잡아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몸속부터 건강해지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HOW TO STRETCH

### ① 어깨 부위

스트레칭 팔꿈치를 누르며 허리를 기울이는 동작. 팔을 들어 팔꿈치를 반대 손으로 서서히 누르며 옆으로 기울인다. 10초 3회, 좌우 교대한다.

### ② 허리 부위

스트레칭 앉아서 무릎을 굽힌 후 앞으로 당기는 동작. 양 무릎을 세운 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가슴 쪽으로 서서히 당긴다. 10초, 5회 반복.

### ③ 무릎 부위

스트레칭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양손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누른다. 8초, 5회 반복.

### ④ 다리 들어올리기

양 무릎을 완전히 펴고 허벅지 부분이 의자에서 떨어지도록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린 후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10초 정도 버틴다.

### ⑤ 팔 스트레칭

양손을 깎지 끼고 앞으로 뻗어 등이 동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앞으로 뻗는다.

### ⑥ 가슴 펴기

양손을 뒤로 뻗어 의자 등받이를 잡고 가슴을 뒤로 젖힌다.

### ⑦ 몸통 스트레칭

허리와 몸을 돌려 의자 등받이를 잡고 10~15초 정도 버틴다.

### ⑧ 뒷목 스트레칭

양손을 깎지끼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손으로 10초 정도 눌러준다.

번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원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주)원익 최진숙  
서우현  
권윤정

---

---

(주)원익퀵츠 장철우  
김미영  
권용미  
도현수

---

---

신원종합개발(주) 박창일  
심규정  
이운정

---

---

(주)아이피에스 최형섭  
문인준  
이진만  
백연종

---

---

(주)아토 김혁  
송태정  
유동석

---

---

(주)원익머트리얼즈 오윤영  
박채모  
송민희  
홍인원

---

---

(주)위닉스 김용희  
홍주선  
이태을

---

---

디비코(주) 김남수

---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김영욱  
최성일  
차은주

---

---

기획조정실 김동철  
박한새

---



2010 FALL  
V O L . 24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2010  
NEW

TVX™  
Slim S1



HDMI 1.3

MKV

HD 1080p

eSATA

uPnP

DOLBY  
DIGITAL

## Be slimmer, Be smarter!

원클릭, 원터치 하드 착탈

초고속 e-SATA 단자 지원

SilentX 쿨링 팬으로 최저 소음 실현

사용자 지정 UI - 메인 메뉴 변경 기능 지원

혁신적인 커버아트 UI

트루 시네마 (23.976Hz) 프레임레이트 지원

자동 컬러 자막 지원

HD 오디오 패쓰스루 지원

APE까지 무손실 압축 오디오 지원 (APE, FLAC, WAVE PACK) CUE 파일 지원